

2021.
JUL + AUG + SEP

가 LAW SCHOOL

미 래 의 희 망 로 스 쿨



- X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혹은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When we do the best that we can,
we never know what miracle is wrought in our life, or in the life of another.

- 헬렌 켈러 (Helen Keller, 1880~1968)



Contents



004 **special report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

012 **special report 2**
온라인 설명회 전성시대

014 **power interview**
장기홍 변호사

018 **hot issue**

020 **letter from**
박경선 변호사
박상흠 변호사

024 **real story**

030 **contest**
제18회 비스 이스트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

035 **book**

036 **happy lawschool**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마태영

040 **opinion**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기정 이사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섭 교수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배소혜
한겨레신문 이재호 기자

050 **art sonata**

052 **law toon**

054 **culture**

056 **akls news**

058 **out campus**

059 **quiz**

2021. jul + aug + sep

발행일 2021년 7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한기정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7월 2일(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 토론자 등 필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 인원은 온라인 방청 방식으로 참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개회사>

한기정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1만 4,000명 이상의 법조인이 배출되었고, 송무 영역 외에도 기업과 공익 영역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다양한 전문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진출하여 국민을 위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지만,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 사항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의 심포지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발표 1> 변호사시험 출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봉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행 변호사시험 출제절차의 문제점>

•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개관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지문의 개수를 채우기 위해 즉문즉답의 형태로 출제되고 그러다 보니 단순히 암기해야 할 판례가 공법, 민사법, 형사법을 합쳐 1만 개를 초과하고 있다.

• 출제현장과 출제 이후 단계에서 문제점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엽적인 쟁점을 다루는 문제, 과도한 쟁점과 분량을 갖는 문제 등을 통제할 수 없다.

• 전문적인 연구나 전문인력의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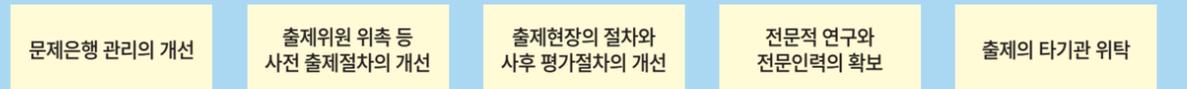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출제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없이 모두 행정직 공무원이 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지속적으로 문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반영하는 의사국가시험이나 법학적성시험 등과는 크게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출제절차의 개선방안>

• 시험의 형식과 내용의 바람직한 방향

변호사시험이 평가해야 할 학생들의 소양과 능력은 암기보다 비판적 추론과 응용능력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변호사시험은 양적·질적 경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시험의 과도한 쟁점과 분량을 과감히 줄이고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비판력, 추론능력, 응용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 출제절차의 개선방안



<변호사시험 위탁출제기관의 검토>

※ 현재 국가기관이 관장하는 주요 자격시험에서 위탁출제가 실시되고 있음.

- 의사국가시험 - 보건복지부(주무기관), 한국보건교육인국가시험원(위탁 시행)
- 공인회계사시험 - 금융위원회(주무기관), 금융감독원(위탁 시행)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출제위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탁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엄격한 출제절차 관리, 법무부와의 출제 관련 업무 분배 등이 필요하다.



< 주제발표 2> 법조지역 확대

김기원 법제이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변호사 과다배출

우리나라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작은 반면, 변호사 수는 지나치게 많다. 한국의 변호사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적다는 주장은 이제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의 변호사 배출 전망을 비교하면, 변호사 수요에 비하여 변호사가 지나치게 많은 국가가 될 예정이다.

• 점차 감소중인 비법조지역 변호사 수요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여 변호사 배출수를 크게 늘린 이유는, 송무·자문 및 판사·검사 등 전통적인 법조지역 이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변호사를 대거 채용하는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오히려 변호사시험 1회 이후로 변호사의 비법조지역 진출은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다.

• 판사 증원 및 사법보좌관에 대한 변호사 임명의 필요성

판사 증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일일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전관예우 등 사법부정의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또한 현행과 같이 변호사 수가 충분한 상황에서는 양정숙 의원의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법원사무관 등 비변호사의 사법보좌관 임명자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 법무담당관 제도

변호사를 적절한 권한과 지위를 가진 자리에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여, 공무원 사회 전반에 변호사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하는 법무담당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법조유사지역 감축 및 대학교육제도로의 일원화>

• 점진적으로 법조유사지역의 선발 규모를 축소하고, 그 권한을 현상 유지하거나, 적어도 실제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행정심판 및 소송의 대리권 등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축소함이 타당하다.

• 제3의 길로서 법조유사지역을 전면 통폐합·축소하는 대신, 우리나라만이 독자적인 법조인력체계를 창안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 주제발표 3>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검토

전종익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의 의의 및 현황>

• 결원보충제도는 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결원으로 인한 손실인원을 충원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정하여진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이나 변호사 배출인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편입학의 경우 개별학교가 학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고 사후검증도 미흡한 점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에서 현행 결원보충제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법학전문대학원 내부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손실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적절한 수의 졸업생 및 법조인의 배출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

※ 법전원 입학생, 졸업생 및 결원보충 현황(2009~2020)

학년도	입학생	결원충원	졸업생	학년도	입학생	결원충원	졸업생
2009	1,998			2015	2,084	85	1,896
2010	2,104	104		2016	2,118	119	1,963
2011	2,092	98		2017	2,116	114	1,923
2012	2,092	96	1,699	2018	2,106	106	1,925
2013	2,099	105	1,887	2019	2,136	136	1,849
2014	2,072	73	1,854	2020	2,130	130	1,860

• 위 자료를 보면 결원보충제 실시가 전체 법조인력의 수급계획에 맞는 적절한 법조인의 안정적 배출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원이 보충됨이 없이 2009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한 2012년도의 졸업생 현황을 보면 1,699명으로 예상된 2,000명의 졸업생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에서 결원을 추가로 보충하지 않고 내부의 학생 이동으로 일부 학교의 결원을 보충하는 편입학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안정적 법조인력의 배출에 차질을 줄 수 있게 된다.

<적법요건의 검토 및 결론>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하여 자신들이 입은 불이익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불이익이 헌법적으로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불이익도 과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본안판단에 들어감 없이 각하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가사 적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자의금지원칙 등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주제발표 4> 공익소송 및 변호사연수 관련 법전원 제도 개혁의 필요성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과 로스쿨>

• 공익소송의 의의와 필요성

사회적 약자보호 등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공익관련 소송이나 전략적 소송(strategic litigation)을 제기하는 것

• 공익소송의 주체

당사자	공익법률단체	변호사단체	기타 (로스쿨 교수 + 학생 + 당사자/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	--------	-------	---------------------------------------

<공익소송과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 공익에 봉사하는 변호사 양성이라는 변호사의 기본사명에 부합하는 예비법률가 양성기관인 로스쿨의 공익법률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의 일환: 공익소송 참여

• 로스쿨 교육과 공익 소송의 선순환관계 구축

로스쿨원생 공익감수성과 공익법기본소양 함양(장학금 등 지원 + 공익리걸클리닉과 공익소송참가) → 초임변호사 공익법률활동(의무 혹은 연장) + 변호사/로펌 등 공익법률활동후원(장학금 및 공익리걸클리닉 지원) → 로스쿨 공익법률활동 강화

<제도적 장애요소>

• 로스쿨 교원의 변호사 겸직 금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④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하 '실무경력교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다.

• 교육부 로스쿨 설립인가 심사기준

로스쿨 설립인가 신청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교원의 수 불산입, 법조실무경력교원의 변호사 휴업은 인가신청서 제출 이전에 신고된 것만 인정된다.

<변호사 연수와 로스쿨>

• 로스쿨 변호사연수제 도입의 필요

법률가양성기관으로서의 로스쿨의 기본 기능, 다양한 배경의 법률가 양성, 학문후속세대양성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 부수효과, 교육 및 연수의 물적 인프라 활용, 교육 및 연수의 인적 인프라 활용(법조경력실무교원 + 겸임교원 등), 로스쿨간·로스쿨과 법실무계간 협업 구조 확충의 기회



<토론①> 정진근 원장(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제도는 '전문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두고 탄생했다. 변호사들이 국제 거래에 나가서도 기업들을 대리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지적권, 회계 등 전문성에 법학 지식을 엮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 법조영역의 확대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법전원을 통해 전문 법조인이 길러져야 하고, 그 법조인이 여러 기업들에 진출해야 한다. 변호사가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영역에 진출해서 두각을 나타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고,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려면 법전원에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 재학 중에 헌법, 민사법, 형사법 공부만 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전문영역을 가르쳐야 한다. 지금까지 법전원 합석 인원 수를 통제해서 안 되고, 오히려 파이를 키우고 법조영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전문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 재학 중에 헌법, 민사법, 형사법 공부만 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전문영역을 가르쳐야 한다. 지금까지 법전원 합석 인원 수를 통제해서 안 되고, 오히려 파이를 키우고 법조영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게 맞다고 본다.



<토론②> 이경호 교수(사법연수원)

-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현 번시 출제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 특히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엽말단적인 내용이나 특이유사 쟁점 출제를 지양하고, 지나친 판례 종속적 출제, 단편 지식 암기 중심의 출제방향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다만, 법전원협의회에의 출제업무 위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법조지역 확대) 유사법조지역의 축소와 교육의 일원화 방안은 매우 유의미한 논의이자, 법조계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고, 진일보한 담론으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 (법전원 공익소송 및 변호사 연수) 실무가로서도 '현역'인 교수가 법전원 교수로서 주도적 실무교육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공감한다.

<토론③> 안웅환 과장(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법학전문대학원 만큼 제도적 완결성이 높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다른 대학원들도 로스쿨처럼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다만, 요즘 보면 아쉬움이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도입 초기의 기대감과 현실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업무를 하다 보면,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접해서 아쉬움이 있다. 시험 교육, 연수, 취업 등 각각 관계되는 기관, 부서가 달라 유기적인 연결이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로스쿨 도입 10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겠다. 다만 계속 전환되고 발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수렴해서 차후에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토론④> 고범준 교육이사(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변호사시험은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변호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법조지역 확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회사의 범위를 늘리거나 장기적으로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상장회사에서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 (법전원 공익소송 및 변호사 연수)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석사과정에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고 여건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과정과 내용, 시기 및 방식 등이 전혀 다른 변호사 연수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를 지을 수 없다.

<토론⑤> **금원섭 논설위원(조선일보)**

-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또는 비율은 어느 정도 높은 선에서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 임용시험이 아니고 자격시험인데 다수를 떨어뜨리는 방식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 자체가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 이렇게 하면 변호사 공급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시장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희소성의 원칙,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경제학 원리를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다.
- 아직도 법률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수요자가 기대하는 법률 서비스와 공급자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간에 미스 매치가 많다고 생각한다. 좋은 법률 서비스를 좋은 가격에 공급한다면 소비자의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토론⑥>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주제발표2(법조직역 확대)를 들은 후 생긴 의문점>

- (변호사 1인당 시장 규모) 발제문의 기본 전제인 “변호사 1인당 시장 규모가 계속하여 감소”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혹시 최소한 수임조차 못 하는 변호사들이 늘었다거나, 개업조차 하지 못한다는 변호사가 있다 혹은 경제 규모가 변했다고 하려면,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 (일본 로스쿨과 사법제도) 예비시험 선발 인원이 적다거나, 합격률이 1%에 불과하다는 등의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 같다. 발제자께서 일본을 통해 주장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 (헌법정신과 직역 확대) 발제자가 얘기하는 준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아예 사법 판단도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국내외에 많다. 미국 연방대법관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은 미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헌법재판관에게 법관 자격 즉 변호사시험 통과를 요구하지 않다. 수사 과정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위헌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토론⑦>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로스쿨 제도에 대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로스쿨 체제를 전반적이고 장기적으로 평가, 조정,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체제가 결여되어 있다.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종속되어 독자적인 기능이 전무한 상태이며, 본질적으로는 법학교육위원회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조정할 수 있는 정책단위가 결여되어 있다.
- 이에 로스쿨의 설치인가·평가·퇴출·신규진입 등의 제도수준의 정책결과와 변호사 시험을 중심으로 한 법률전문가 자격부여 단계의 정책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상급의 의사결정(심의)기구 혹은 그러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토론⑧> **마태영 학생대표(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발제자께서 변호사시험을 법전협에서 위탁 실시하는데 있어서 단계적 접근이 갖는 장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이때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겪게 되는 부담은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 (법조직역 확대) 현 제도 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신의 목적과 괴리되지 않고 구성원의 ‘퇴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구성원이 충분히 우수한 법조인이란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기타) 비단 현재의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다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기존의 학사운영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운 시기가 또 올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었던 불편함, 실제 학업 수행에서 느꼈던 어려움, 학사운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법전협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⑨> **육소영 원장(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현재 전문위탁출제기관을 통해 출제되는 의사국가고시의 합격률은 매해 97%이상이라는 점에서 출제방식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또 전문위탁출제기관의 장점을 변호사시험에서 살릴 수 있는 기관으로 법전원협의회를 들고 있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진 기관이 위탁출제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법조직역 확대) 기관에서 뽑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 특별채용 인원 수는 제한적이고 기존 채용인원이 퇴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비법조직역의 변호사수요의 확대는 비법조직역에서의 변호사들의 노동의 유연성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
- (법전원 결원보충제도) 편입학으로 인한 결원보충제도가 관련 지방 소재 법전원만의 문제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하여 지방 소재 법전원은 편입학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지역균형인재선발을 채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결원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
- (법전원 공익소송 및 변호사 연수) 연수시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특히 법조인력양성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법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심포지엄 자료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심포지엄 동영상은 유튜브채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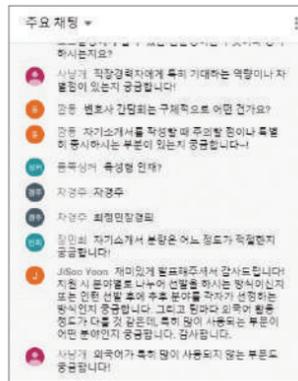
2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기반으로 진행되던 각종 설명회들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만큼 온라인으로 실무수습·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 로펌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어서와, 우리 로펌은 처음이지? 온라인 설명회 전성시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법무법인(유) 올촌, 지평, 태평양 등은 상반기 실무수습 설명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하였다. 설명회의 순서는 로펌마다 상이하였지만, 대부분 기업 문화, 채용 철학 등을 설명하고 실무수습 과정을 안내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유튜브 채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로펌 변호사들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질의하는 내용에 바로 바로 답변해주었고 큰 호응을 얻었다.



법무법인(유) 지평 2021년 상반기 실무수습 설명회에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21.4.27)



법무법인(유) 태평양 2021년 상반기 실무수습 설명회(21.5.6)

웹엑스(WEBEX), 줌(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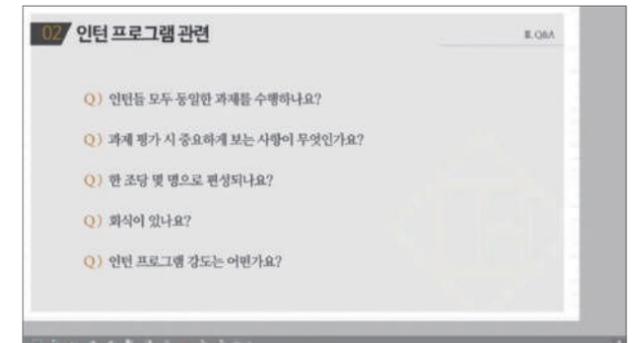
법무법인(유) 화우, 김·장 법률사무소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친숙한 프로그램인 줌(ZOOM), 웹엑스(WEBEX)를 활용하여 설명회를 진행했다. 유튜브 스트리밍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진행되지만, 사전에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접근 권한이 주어진다. 위 로펌들은 각고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참여자를 모집하고 사전 접수를 받았다.

시간	진행순서	진행
13:00	개회 및 인사말	사회자 - 박영수 변호사
13:05	법인소개	박영수 변호사
13:20	인턴십·채용관련 설명	양소라 변호사
13:40	신입 변호사연차의 디테일	신영진 변호사
13:45	질의 응답	양소라, 박영수, 신영진 변호사
14:00	폐회	

법무법인(유) 화우 인턴십·채용 온라인 설명회(21.4.27)

유튜브 사전 제작 영상 송출

정해진 시간(시간) 동안만 사전 제작된 동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로펌도 있다. 법무법인(유한)바른은 이미 만들어진 동영상을 일부 기간만 유튜브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사전에 제작된 영상인 만큼, 실시간 설명회보다 탄탄하고 체계적인 구성이 돋보였다. 다만, 쌍방향 소통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설명회 이후 이메일을 통한 추가 질의를 받았다.



법무법인(유) 바른 하계 실무수습 설명회(21.4.27)

mini interview

장품 변호사
(법무법인(유)지평)



Q.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

A.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오히려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편하게 접속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집중도 잘 되어서 좋다는 반응이 많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댓글로 눈치보지 않고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크다고 본다. 온라인설명회에 맞는 전달방식, 소통방식을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게 관건이 아닐까 싶다.

Q. 추후 다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나?

A. 정부 지침과 외부 환경에 달린 문제이겠지만, 온라인설명회 자체의 장점이 적지 않게 있는 만큼 향후에도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물론 여건의 변화로 오프라인 설명회가 가능한 상황이 온다면, 학생들의 눈빛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으니 오프라인 설명회도 병행하면 하는 바람이 있다.

세 시간 가량 이어진 인터뷰가 마무리 될 무렵, 장기홍 변호사는 오래 품고 있었던 진중한 생각을 드러냈다. “정당에 몸담은 일원인 만큼, 우리 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고 더 많은 지지를 받게끔 만들고 싶어요.”

“국회는 사회적 필요성과 민심의 동향이 더 중요한 ‘여론의 법정’”

장기홍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운영 전문위원(변호사)

직장 생활을 하다가 로스쿨에 진학했다. 진학 계기는 무엇이었나?

‘8개월 인턴 기간 종료 후 평가에 따라 50% 정규직 전환’. 나의 첫 직장의 채용조건이었다. 뒤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실패한 고시생으로서의 어렵사리 구한 소중한 기회였다. 하지만 동기 20명 중 절반이 인턴기간 종료 후 실제로 짐을 썼다. 그렇게 살아남아 3년차 회사원이 되었을 때, 회사는 업황이 안 좋으며 구조조정을 했다. 수십 명의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 세상은 혹독한 곳이었다.

회사를 관두고 로스쿨에 입학한 것인가?

다니던 회사는 금융권 한 협회였다. 법령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나름의 논리를 만들고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업무를

주로 수행했는데, 법대 출신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반쪽짜리라는 말을 들었다. 극복을 하려면 내 스스로 공부를 해야했다. 신혼 때부터 야간과 주말에 자비로 대학원을 다녔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도 하고, 직장에서의 경험도 쌓이다 보니, 입법의 무게추가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보였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나중에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직접 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 늦으면 입학 자체가 어렵겠다는 판단에 37살에 로스쿨 입학원서를 냈고, 다행히 내 포부를 좋게 봐주신 서강대 로스쿨에 7기로 입학할 수 있었다. 최고령이었다. 회사에서는 전례대로 사표를 쓰라 했지만, 마침 셋째아이도 태어났던지라 무작정 그만둘 수는 없었다. 남자직원 최초의 육아



장기홍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운영 전문위원

휴직이라도 불사하겠다고 버티면서 상사들을 설득했다. 3년간의 청원연수 길이 그렇게 열렸다. 학비지원은 없었지만 일단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에 완강하던 아내도 결국 로스쿨 행을 승낙했다.

3년간의 로스쿨 생활은 어땠나?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애를 봐야했다. 5살, 3살, 1살 아이 셋을 아내 혼자서 내내 볼 수는 없었다. 성적은 밑바닥인 게 당연했고, 마이너스 통장은 다달이 신기록을 갱신해나갔다. 힘들게 빠져나왔던 수험생활 늪에 내 발로 다시 걸어 들어왔다는 자책감에 짓눌렸다.

1학년이 끝날 무렵, 행정법을 담당하는 정하중 교수님께서 연구실로 나를 부르셨다. “애국은 많이 했으니, 공부를 더 챙기게.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네.” 면담이

야기를 들은 아내는 기숙사행을 권했다. 그렇게 2년간 주말 부부가 됐다. 아내의 무한희생 덕분에 학교생활은 차차 안정을 찾아갔고 3학년이 되어 치르는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로스쿨을 마치고 진짜로 국회로 갔다. 어떻게 된 것인가?

2018년 졸업 및 변호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회사로 복귀했다. 꿈꿨던 국회 도전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2020년께나 기회를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뒤, 법무차 국회 홈페이지를 들렀다가 우연히 채용공고를 보게 됐다. 20대 여야 국회의원 중 최고 경제통이라고 알려져 있던 최윤열 의원님께서 5급 비서관을 구한다는 공고였다. 심지어 금융투자업계 경력자로서 입법 관련 업무를 해 본 사람을 우대한다고 했다. 흔치 않은 기회였다. 잡아야만 했다.

퇴근과 동시에 아내와 가족들을 설득하고, 이튿날 이력서를 냈다. 면접을 거쳐 이직이 결정되기까지 사흘이 채 걸리지 않았다.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는 어땠나? 특별히 기억나는 일화는?

의원님께서서는 금융투자분야 학계와 업계에서 공히 최고의 숙원과제로 불려왔던 세금제도 개혁에 나서보자 하셨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행정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땀질식으로 과세방법을 만들다보니, 세금체계가 금융 상품별로 제각각이었다.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인별 연간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체제로 단순하게 바꾸면,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조세의 형평성도 크게 제고할 수 있으리라 봤다. 30년 전에 제도를 이렇게 바꾼 일본은 세수도 몇 배나 늘어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됐다.

시중 부동산금이 부동산으로 계속 흘러들어 골치를 썩던 당에서는 국민들의 자산이 금융시장을 통해 기업으로 흘러가 건전하고 생산적인 순환구조를 만들고 싶어했다. 의원님께 당대표를 모시고 업계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 했고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집권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을 만났다. 의원실에 간 지 반년만의 일이었다. 세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 40여년 넘게 반대하던 기획재정부의 철용성을 그렇게 깼다. 로스쿨에서 돌아오자마자 퇴사했던 마음의 빔도 그렇게 값았다. (바뀌는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의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운영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가?

의원님께서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시면서, 새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마침 당 정책위원회에 국회 법사위원회·운영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 자리가 공석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다.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는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군사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무처 등 권력기관을 담당한다. 나는 이 기관들과 관련한 법안이나 정책현안들에 대한 ‘정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달달이 돌아오는 회기에서 법

안 처리전략에 대해 고민한다. 정책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법에 대한 지식과 정무적인 판단이 함께 요구되는 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업무를 설명한다면?

지난 해 말,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셴다. 과도한 형사처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재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故김용균씨 어머니는 국회에서 3주 넘게 단식을 하고 계셔서 시간은 촉박한데, 발의된 법안들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학계와 각 기관의 지적이 계속됐다.

입법 취지는 살리면서도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절충점을 빨리 찾아야 했다. 당내 의견이 모아져야 야당과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당 정책위원회 내에서 수많은 회의를 거쳤고, 의원총회도 수차례 거쳤다. 전례가 없는 집중적인 법안 심의가 더해지면서 중대재해법이 2021년1월8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는 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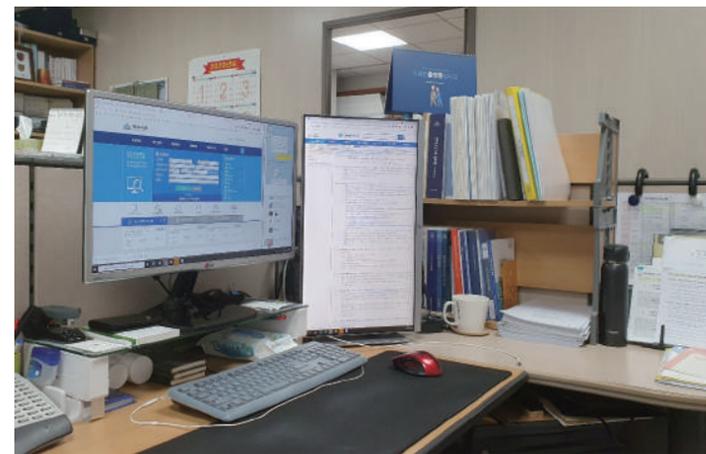
각 의원실은 다양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대표해서 법안을 발의하는데 집중한다. 하지만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법안들 중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골라 실제로 처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통과시키려는 법안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가 있는지를 꼭 살펴보려하는 편이다. 그래야만 이견을 해소하기 쉽고 바꾸려는 제도도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

소관 법률안 중에서 학계 차원의 공감대가 가장 컸던 것이 행정기본법이었다. 국정과제라며 야당 반대가 심해 좌초 위기에 있었다. 정작 여당 내에서도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정부안을 마련한 법제처에는 야당에 행정법 학계의 오랜 논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당 내에는 직접 정책위 회의에서 육법전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칠법전서의 시대를 열자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 결과 제정법으로는 이례적으로 2시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책으로만 배웠던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이 법조문으로 성문화되는 순간이었다. 물론 공부량이 늘어날 로스쿨 후배들에



국회를 배경으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장기홍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운영 전문위원의 책상

게는 미안하다(웃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의원실의 경우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의 관심 분야와 그 방향성이 자신과 맞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입법의 영역은 ‘여론의 법정’이어서 경기규칙이다르다. 그동안 공부해온 판례의 법리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필요성, 뒷받침하는 통계자료, 민심의 동향,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법률의 법정’에서 일하고 싶은 변호사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모교 로스쿨에서 진행한 특강이 인기가 있다고 알고 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취업, 학업 등에 있어 앞날이 막막했던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변의 조언과 도움이 있었다. 스승님 일 때도 있었고, 업연이 있는 상사일 때도 있었으며, 선후배나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최소한 내가 받은 것만큼이라도 되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좋게 생각해주시고 자리를 계속 마련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본인의 커리어와 관련된 향후 계획과 목표는?

공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은 모두 나름의 믿음대로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고 일한다. 여야 간에도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당에 몸담은 일원인 만큼, 우리 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고 더 많은 지지를 받게끔 만들고 싶다.

issue 01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업무 협약식 체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 5월 10일(월) 변호사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장학금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의 체결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도 1학기부터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게 본 협약의 체결 취지에 맞도록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을 추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장정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을 비롯해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issue 02

**한국외대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美럿거스대 로스쿨과 MOU 체결**

지난 5월 26일(수) 한국외대 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미국 럿거스 로스쿨(Rutgers Law School)과 MOU를 체결하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JD) 및 일반대학원 법학석사(Master of Law) 졸업생의 럿거스 로스쿨(Newark 캠퍼스)의 2년 속성 JD 과정 입학 특례에 대하여 합의했다.

통상 3년 과정인 로스쿨 과정을 외국인 변호사에 한해 2년 속성 과정으로 제공하는 럿거스 로스쿨의 '2-Year Accelerated JD for Foreign Lawyers'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미국 어느 주에서도 동일하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러한 2년 속성 JD 프로그램 입학에 대해 요구되던 변호사 실무경력 대신 한국외대의 법학 관련 석사학위만 취득하면 2년 속성 과정에 지원이 가능하며, 한국외대 출신 지원자에 한해 LSAT 대신에 GRE 점수 제출이 가능하다. 럿거스 로스쿨은 매년 약 1,000명 수준의 신입생이 입학하는 대규모 로스쿨 중 하나로, 'gender'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한 미 연방대법원의 고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이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던 로스쿨이기도 하다.



issue 03

**활짝 핀 꽃처럼
피어난 사제지간의 정**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게 꽃과 음료 선물이 도착했다. 법전문 재학생들이 매년 존경의 의미를 담아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올해 스승의 날에도 그 전통이 이어진 것이다. 제자들에게 선물을 받은 교수들 또한 '꽃 릴레이'를 통해 감사를 표했다. 법



전문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활짝 핀 꽃을 놓아, 지나가는 누구든지 즐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꽃 릴레이에는 현재까지 최우용, 조재현, 정해영, 최성수, 노미리 교수가 참여했다.

보답의 의미로 '꽃 릴레이'를 시작한 법전문 교수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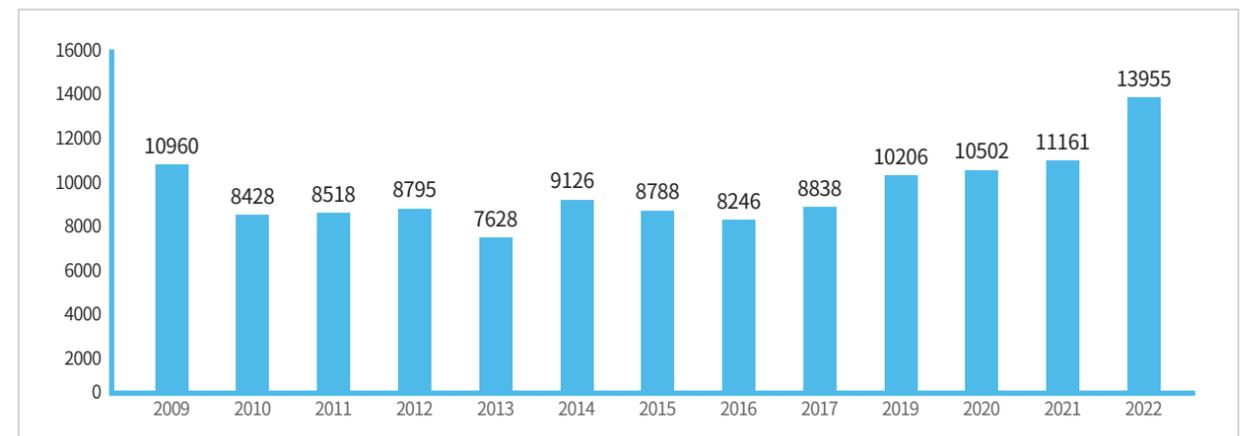


스승의 날을 맞아 교수님들 앞으로 도착한 꽃바구니와 화분

issue 04

**7월 25일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수험생 역대 최다**

오는 7월 25일(일) 전국 9개 지구 26개 고사장에서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 시행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5월 25일(화)부터 6월 3일(목)까지 원서접수를 받았으며, 그 결과 법학적성시험 신청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접수자는 13,955명으로 작년(12,244명)보다 1,711명(13.97%) 증가했다. 이는 2009년 법학적성시험이 처음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의 기록이다. 신청자를 전공별로 보면 사회계열(21.93%), 상경계열(20.61%), 인문계열(18.83%), 법학계열(17.23%)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5세 이상 30세 미만인 49.16%로 가장 많았고, 25세 미만(21.10%), 30세 이상 35세 미만(17.64%)순이었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8월 18일(수)에 발표되며, 로스쿨 원서접수는 9월 27일(월)부터 진행된다.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인원(2009학년도~2022학년도)

변호사를 산다는 것과 변호사로 산다는 것



법무법인 YK

박경선 변호사

“주변에서 변호사 사야 한다고 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변호사를 안 샀지!”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종종 들은 적 있지만, 변호사라는 당사자가 되어 의뢰인들이 면전에 대고 하는 ‘변호사를 산다’라는 말을 직접 듣고 있으면 감회가 새롭다. 그 말에 가끔 상처를 받는 건 내가 아직 변호사로서 미숙하기 때문일까 아직 의뢰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많이 남아서일까 하는 고민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변호사를 산다’라는 표현은 참 흥미롭다.

유사전문직으로 당장 떠오르는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그 어떠한 직업에도 ‘산다’라는 말이 붙은 걸 나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유독 변호사에게만 ‘산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뭘까 몹시도 궁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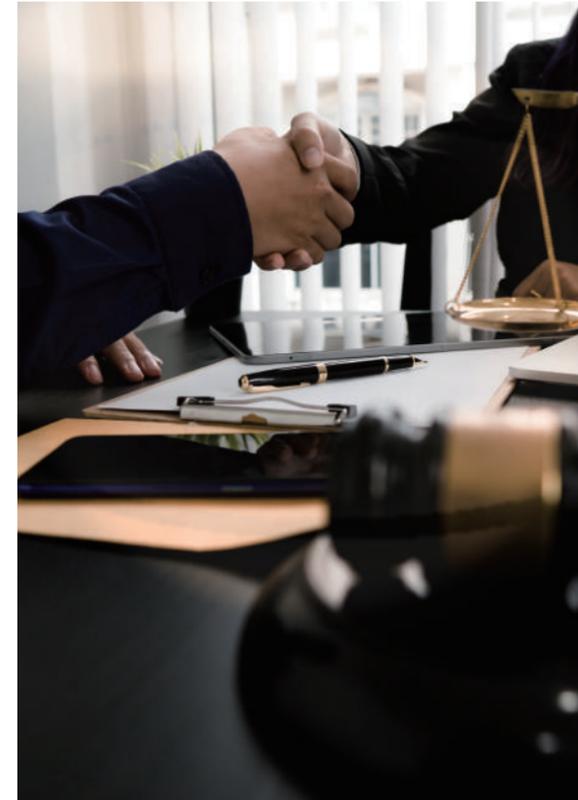
원로 변호사 분께 이에 대한 어원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 역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하셨다. 그 이후로도 혼자 가끔 ‘변호사를 산다’는 말의 어원이 뭘까 궁금해하

는 순간이 되면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져 보며 그 말의 뿌리를 찾아보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을 뿐이다.

공부할 때 전문직과 의뢰인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인가 ‘고용’인가 ‘도급’인가 등등에 대하여 들을 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을 뿐이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분명 위임관계라고 배웠는데, 왜 현실에서는 다른 전문직들과 달리 유독 변호사만 채권각론 저 앞에 위치한 ‘매매’의 목적물로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칭해지는 것일까 몹시도 억울하기도 하다.

나름의 추측으로 내가 내린 결론은, 건국 이래 가장 선망의 직업 중 하나였던 법조인을 의뢰인인 내가 돈을 내고 ‘산다’고 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우월감, 성취감 또는 그와 비슷한 감정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 거기에 법조인 중 판사나 검사에게는 ‘산다’는 표현이 사회정의 관념이나 일신상의 안위를 생각할 때는 몹시도 부적절한 조합이기에, 유독 변호사만이 ‘산다’의 객체로 남은 것이 아닐까 싶다. 어디까지나 뇌피셜일 뿐이다.

그 어원을 찾는 것을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공익법무관 시절을 포함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지도 4년이 넘어가고 있다 보니 ‘변호사를 산다’라는 표현은 어느



물론 송사에 휘말려 급한 심정인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변호사 대 의뢰인으로 만나기 이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내가 널 샀는데 말야와 같은 태도를 접하고 있노라면, ‘이 사람이 나를 자기 비서로 아냐?’, ‘이 사람이 나는 자기 사건만 해야하는 줄 아냐?’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 배려 없음에 속으로 욕할 때가 많다. 감정노동자들의 심정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아직도 ‘변호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배워가고 있는 단계다. 적어도 지금까지 느낀 것은, 나에게 대한 고민보다 남(의뢰인)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직업임에는 틀림없다. 점점 나를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느낄 때면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나는 오늘도 ‘나를 샀다’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어쨌든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니까. 그래도 결과가 좋고 의뢰인들이 좋아하면 나도 뿌듯하니까.

그래도 ‘변호사로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할 예정이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나에게 ‘변호사를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그런 말은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해봐야겠다. 그 말이 문제인지 태도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작은 변화의 일렁임이 우리 동료 변호사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지도 모르니까. 변호사로 사는 것에 더 뿌듯함을 줄지도 모르니까.

순간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대하는 태도 중 하나로 뿌리내려진 것이 분명하다. 물론 만났던 모든 의뢰인이 그 말을 쓰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은 주말에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의뢰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의 사건 이야기를 막 해댄 적이 있다. 주말이라 당장 처리할 수도 없는데 말이다. 변호사가 막 되었을 때 멋모르고 선의로 알려준 내 개인 휴대번호로 시도때도 없이 다짜고짜 전화를 해대는 그 의뢰인에게 내 소중한 주말 시간, 내 개인 생활이 침해당하는 경험을 하고 난 이후 그 덕에 난 개인폰, 업무폰 투폰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태도 때문에 그 말이 생긴 것인지 그 말 때문에 그런 태도가 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변호사를 산다’라는 표현을 쓰는 의뢰인 대부분에게서 같은 모습이 보인다.

박경선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6회
現 법무법인 YK 변호사
現 무안군 고문변호사

나의 개업기



법무법인 우리들
박상홀 변호사

내가 변호사가 된 때는 2013년 4월경이다. 천신만고 끝에 합격해서 감격한 탓인지 긴장감이 풀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후 8년여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고용변호사와 대학교 사내변호사로 활동하였고 드디어 만삭동으로 변호사 나이 8살이 된 올해 개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가 후퇴하고 변호사 업계의 얼어붙었다. 설상가상으로 포화하는 변호사시장에서 사건 수입수도 급감하고 있는 이때에 새로 변호사시장에 진출하는 변호사가 준비할 일은 무엇일까.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마지막 수업시간에 대법관 출신이신 조무제 교수님의 조언을 잊을 수 없다. 시골에 내려가서 무료변론을 도와주는 일을 해보라는 것이다. 무료변론을 하다보면 의뢰인들과 시골 주민들이 변호사에게 먹을 양식과 돈을 주게 되고 차차 생활에 안정을 취해갈 것이라는 고견이었다. 실제로 요즘 서울과 도시지역을 떠나 시골지역에 내려가 개업을 한 변호사들의 성공담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다.

누구든 자신이 가진 강점을 살리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역시 변협신문과 법학전문대학원 회지에 수시로 투고하면서 쌓아온 습작노력을 활용할 생각이 다. 우선 대학법률에 관련된 자료들을 취합하여 대학법률 안내서를 발간하려고 한다. 개업 후 한동안은 사건 수가 많

지 않을 것이다. 빈 시간을 활용해 원고를 작성한 후 여러 전문가와 교수님들의 자문을 얻어 대학소송과 교원소청에 적합한 한편의 책을 발간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소기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해본다.

개업변호사는 소프트웨어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시설준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 같은 경우 우선 빌린 공간에 페인트칠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장만하고 의뢰인들과 편안하게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쇼파를 준비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아온 지인들에게 개업인사를 보냈다. 코로나 시기에 개업식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일부 지인들만 초대해 약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무



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 커피머신과 테이블, 보드판, 아직은 부족한 나의 일을 도와줄 직원들이 필요하다.

경제적 여유도 필요하다. 물론 경제적 여유를 갖기란 쉽지가 않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변호사들은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려 간혹 일탈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개업 변호사는 재테크도 익혀둘 필요가 있다. 재테크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주식투자를 소액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일인 것일까 생각해본다. 많은 이들이 주식을 도박으로 오인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부한 상법의 회사법편을 보면 주식은 엄연히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주는 유가증권이며, 주식발생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회사법을 실무적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주식을 매매해보지 않고서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다. 신주발행, 감자, 유증, 무상증자 등 회사법 조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식의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주식매매만한 길이 없다.

자본가를 변호하는 데 한 방면으로 일해야 하는 변호사들은 주식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고 회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시장경제의 동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향후 전개될 소송사건의 트렌드로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조언을 대구공항 소음사건에서 집단소송을 수행한 바 있는 선배변호사로부터 들은 바 있다. 우리 개업변호사들은 경제신문 한 개정도는 읽고,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는 재테크 정도는 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개업을 막 시작한 초년병 변호사가 개업사무실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히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말일 것이다. 나는 선배변호사들로부터 더욱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으려 한다. 사무직원에게 의존하는 사무실은 위험하다. 오히려 사무직원의 도움과 협력을 도모해야 당장은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나타내리라 기대해본다.

내가 택한 전문분야는 대학, 교회, 경매, 교통사고, 명도소송 등이다. 개업과 함께 첫 사건이 찾아왔다.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언젠가는 독자여러분 모두에게 숙명적으로 찾아올 개업변호사.

변호사의 경전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밝히듯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업변호사로서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치 사법부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듯, 이를 위해 우리는 다시금 글 초두에 언급한 조무제 대법관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시골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서울에서 활동하는 거주 변호사는 더욱 증가하고 있고, 지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시골 지역은 여전히 무변론이 방치되어 법률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로스쿨은 국민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로스쿨 변호사들에 대한 신뢰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더불어 개업을 위해 법률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개업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희망을 가져본다.

박상홀 변호사

前 동아대 법무감사실 법무팀장
現 대한변협 법령심사위원
現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김은조 변호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1. 들어가는 말

저는 법전원 1·2학년 재학기간 동안 성실하게 수업에는 참여했지만 치밀한 준비와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부를 하다보니 법학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제대로 정리된 기본서도 없는 상태로 3학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치열하게 노력했던 지난 1년간의 수험경험이 다른 분들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수기를 씁니다.

2. 6월 법전협 모의고사까지의 학습전략

3학년 초 본격적으로 변호사시험 준비를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는 「조바심을 내지 않고, 세 번의 법전협 모의고사 일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유형의 출제형태를 한꺼번에 학습하기보다는 객관식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중요판례들을 숙지하고자, 전 개년 번시·변모 선택형 기출문제집 정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출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풀어본 후 해설에 실린 판례가 어떻게 지문화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중 기존에 알고 있었던 판례나 쉽게 이해가 되는 판례를 지워나가는 작업까지 하다 보면 한 과목당 거의 한 달 가까이 교재정리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진도가 무척 더디게 나가고 이렇게 미련하게 책을 보는 것이 맞나 싶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우직하게 곱씹으며 이해하려 했던 판례들 덕분에 이후 사례형 시험과 기록형 시험준비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 모의고사를 친 이후에는 오롯이 선택형 공부만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매일 오전 2시간씩을 내어 이때 정리해 둔 선택형 기출문제집을 꾸준히 반복 학습하였습니다.

2020학년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례없는 비대면 온라인수업이 진행된 첫해였습니다. 그러나 수업 진행방식과 상관없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등교하여 법전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좀 더 수험 적합하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학교에 나갔습니다.

2020학년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례없는 비대면 온라인수업이 진행된 첫해였습니다. 그러나 수업 진행방식과 상관없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등교하여 법전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좀 더 수험 적합하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학교에 나갔습니다.



준히 학교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커리큘럼에 맞추어 최근 3년간(2017-2019년도) 번시·변모 형사법 기록형문제를 풀고 지도교수님께 첨삭을 받았습니다. 매주 과제로 나오는 기록형시험 답안제출을 위해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스터디를 조직하였고 사전에 문제를 확인함이 없이 강의실에 모여 실천처럼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는 스터디원들과 모여 왜 그런 죄명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관련 판례와 법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토론하며 좀 더 깊이 있게 기록문제에 접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답안지는 매주 교수님께서 애정 어린 첨삭을 해주셨고, 엉뚱한 제 답안에 혼을 내시는 교수님의 강평글이 달린 쟁점은 한 번 더 해설교재에 표시하여 여러번 반복 학습하였습니다. 형사기록이 익숙치 않던 학기 초에는 시험시간 2시간 중 기록검토에만 1시간 30분을 소비하기도 하고, 시간 내에 답안작성을 마치기 위해 기록검토를 빨리하면 대다수의 쟁점을 누락하는 실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한 덕분에 3학년 1학기를 마칠 즈음에는 어느 정도 형사법 기록형문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 8월 법전협 모의고사까지의 학습전략

8월 법전협 모의고사는 6월 법전협 모의고사와 한 달 간격으로 시행되므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계획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최근 3년간(2017-2019년도) 번시·변모 사례형문제를 풀고 쟁점추출 위주로 복습하였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쟁점암기까지 마치기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체력적으로도 힘에 부쳤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에 이러한 표현이 있으면, 이 쟁점과 연결된 것이다」는 식으로 쟁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다만 사례문제 해설은 꼼꼼하게 정독하였고 빈출되는 쟁점이나 내가 찾지 못했던 쟁점은 별도로 암기장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70여 일 앞둔
시점부터는
지금까지 정리해둔과목별
변시·변모 선택형·사례형·기록형
기출문제집과 암기장을
여러 차례 반복 학습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딱 일주일
남겨둔 시점부터는
일자별 응시과목의 역순인
민사법-형사법-공법의
순서로 기출쟁점을 확인하고
최신판례교재를
빠르게 훑어보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정리를 하였습니다.

4. 10월 법전협 모의고사까지의 학습전략

10월 법전협 모의고사를 두 달 앞둔 시
점부터는 과목별로 암기장을 정리하고, 주
요 학설과 판례 문구까지 암기하며 본격적
으로 사례형 시험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교 커리큘럼에 맞추어
최근 3년간 (2017-2019년도) 변시·변모 공
법 및 민사법 기록형문제와 형사법 및 민사
법 사례형문제를 풀고 각 지도교수님들께
첨삭을 받았습니다. 공법 기록형시험은 공
법 사례형시험과 답안작성 형식에서만 차
이가 날 뿐 실제로 답안지에 현출할 내용
은 대동소이하므로 기록형 수업을 들으며

사례형시험까지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과목
에 비해 특히 공법을 어려워했고 10월 초가 될 때까지도 공법 사례형과 기록
형시험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해 막막했습니다. 그때 절박한 마음으로 부족
한 답안지를 들고 교수님을 찾아뵈었고, 용기 내어 조언을 구한 덕분에 이후
공법 수험준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법 기
록형시험 역시 친구들과 강의실에 모여 실전처럼 답안을 작성하였는데, 힘든
시기 곁에서 응원해주고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해준 친구들이
있었기에 공법이라는 큰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변호사시험까지의 마무리전략

변호사시험을 70여 일 앞둔 시점부터는 지금까지 정리해둔 과목별 변시·
변모 선택형·사례형·기록형 기출문제집과 암기장을 여러 차례 반복 학습하
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워낙 소화해야 할 공부량이 많아 도저히 선택과목(환
경법)과 최신판례교재를 볼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와 의기투합하여 변호사시험 한 주전까지 매일 밤 8시에는 선택과목, 매
일 밤 11시에 최신판례를 공부하고 그날의 진도를 인증하는 스터디를 하습
니다. 변호사시험을 딱 일주일 남겨둔 시점부터는 일자별 응시과목의 역순인
민사법-형사법-공법의 순서로 기출쟁점을 확인하고 최신판례교재를 빠르게
훑어보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정리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장을 들어가기 전까지의 70여 일과 변호사시험을 치르
는 결전의 5일은 매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잃는 순간 진정한
위기가 온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지금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
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6. 나가는 말

저 역시 여느 수험생들처럼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쑥 불안한 생각이 들어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분
의 한 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남은 수험기간을 굳건히 이겨내
실 수험생분들께 그때 제가 들었던 응원의 말을 나누며 수기를 마칩니다. 모
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시험은 이번으로 붙을 수도 없지만,
이번으로 떨어질 수도 없다.”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 게임의 룰 -

1. 들어가는 말

주변에 로스쿨에 대해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는 스스로를 ‘가짜 로스쿨 졸
업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회사를 운영하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한 터라 학업과 대학원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고, 아직도 로스쿨 과정은 물론
변호사시험에 대해서 가진 정보와 안목은 다른 일반적인 졸업생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이 수기가 배포될 즈음
까지 시험준비가 덜 되어 불안하거나 학업수행에 여러 제약조건이 있으신 원우
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합니다.

2. 게임의 룰?

로스쿨 원우님들은 지금까지 많은 시험을 경험하셨을 터이므로 여러 시험
마다 각기 다른 수험전략이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
다. 변호사시험도 예외는 아닙니다. 방대한 법학과목의 분량에 지쳐 한 과목씩
을 소화해내거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잠시 망각하기 쉽지만, ‘훌륭한 법
학실력을 갖추는 것’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을지언정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떠올
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규칙에 맞추어 플레이해야 합격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자주
고민했는데, 이를 거창하게 ‘게임의 룰’이라고 표현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올릴 필요도, 고득점을 올릴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현저히 부족한 시간을 활용해 합격의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두서없이 제가 생각하고 경험한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
한 ‘게임의 룰’에 대해 늘어놓아 보겠습니다.

3. 수기답안 시험

저는 로스쿨 저학년 때부터 변호사시험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글씨를 잘 쓰지도 못하고 작성 속도도 느린 편이어서 수기답안으로 작성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임현서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에 있어
게임의 룰은 시험 그 자체
특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하면,
어느 부분은 수험생의
개인적 여건, 학습 수준,
가용할 수 있는 학습 시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구체화할 수 있고,
그 개별적인 요소들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주어진 여건과
본인의 위치를 두루 고민해
합목적적인 수험전략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공포감을 극복하기 위해 식별 가능한 글씨를 조금 더 빠르게 쓰기 위한 고시체 연습을 했었고, 연습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기존의 손글씨를 쓰던 방법을 바꾸어 그 이후에는 손글씨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겪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스쿨 재학시 학내 고사를 컴퓨터로 응시한 적이 있는데, 손으로 작성하던 때보다 현저히 더 많은 양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수기답안을 작성하는 시험이

고 시간 제약 하에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내용을 모두 적어서 낼 수 없다는 점에 서 글씨의 식별가능성, 글씨 작성의 속도는 실질적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키워드로 채점해 점수를 표준화하는 사례형, 기록형 시험에서 단 몇 분이라도 생각나는 일반론을 적어서 채우는 것과 아닌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글씨가 빠르다는 것은 시험 상황에서 시간 관리에 도움을 주는데, 특히 합격만이 목표라면 시간 관리 실패로 인한 백지답안(이른바 '통백') 제출을 막아주는 데에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현행 시험 체제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는 글씨를 쓰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빠르게 답안을 적을 수 있도록 숙달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속도를 높이는 것과 형식적 답안작성의 기술(목차, 형식적 기재사항 등)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빠른 속도로 식별 가능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임의 룰'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수험생분들께는 현재 조건하에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4. 파국을 막는 시험운영

앞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의 비중이 높은 현행 변호사시험의 구조상 그 어느 한 과목을 터무니없이 망치지 않는 것이 합격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더 논리적인 답안을 풍부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시간을 더 주면 더 좋은 답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각 문제마다 적당히 키워드 위주로 답을 적어넣는 것이, 일부 문제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완벽에 가까운 답안을 적어넣고 일부 문제에는 궁색한 답안을 적어넣는 것보다 합격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실전 상황이 닥치더라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문제를 적당히 쓰고 냉정히 넘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적당히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문제별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는 훈련을 미리 모의고사 때 충분히 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5. 다 알고 푸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시험은 문제의 절대적 난이도가 상당한 시험입니다. 제 짧은 경험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의 민법 과목 선택형과 비교하자면 지문 길이, 요구하는 논리적 사고과정의 복잡성, 시험범위 등 모든 요소에 있어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객관식 채점 후 어느정도 합격을 자신할 만한 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맞춘 문제들임에도 확신이 없는 문제들이 허다합니다. 잘 알아서 맞췄다고보다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잡는 느낌으로 얻어걸린 듯한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어느정도 불확실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긴가민가한 느낌이 학부 졸업시까지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였던 수험생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답을 고르기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면 그것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어느정도 알더라도 더 알고 싶기에 시간을 쏟기 쉽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을 체험해보니 그 어느 과목이든 속속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쿡 찌르면 바로 외우고 있던 주요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필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더라도 합격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물론 학습완성도가 높다면 고득점을 할 수 있고 망친 과목을 만회할 수도 있을 것이며 실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을 투입하여 합격을 하여야 하는 여건이라면 '특정 과목을 더 알기 위한 공부'보다는 '아예 모르는 과목이 없는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차피 키워드식 채점에서 모든 쟁점을 다 찾아 써 내려가긴 어렵습니다. 아는 것만 채우고 나오더라도 시간이 남지 않도록 무언가라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선택형은 아는 선지들은 소거하고 최후에는 찍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합격수기를 읽더라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할 만한 고득점대의 일부 수험생을 제외하고, 당장 합격이 주요 목표라면 특정 쟁점을 완벽하게 쓰는 연습보다는 내가 듣도보도 못한 쟁점이 나올 확률을 줄이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컨대 공부의 깊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버려도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6. 망각을 막는 장치

변호사시험은 외울 것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과목의 논리체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결국 합격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요 내용을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주요 내용만 해도 외울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번 외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외우는 데에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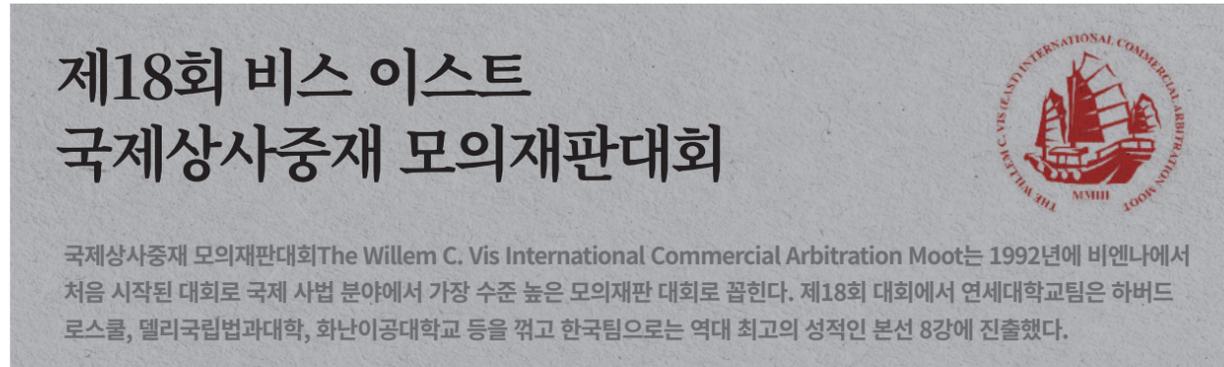
더더욱 어려운 점은 체계적으로 전개되는 주요과목의 법리 외에도 정돈되지 않은 많은 학습내용을 밀도끝도 없이 외워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

서, 체계적으로 머릿 속에 담아둘 수 있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혼재되어 많은 학습부담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휘발성 강한 내용,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으나 출제가 가능성은 높아 반드시 외워야 할 내용들은 그 자체로 기억에 각인시킬 수 있는 인지적 매개장치가 필요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두문자 등 암기방법은 특히 논리적 체계가 미흡해 휘발성 강한 내용들을 장기기억으로 바꾸는데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망각을 막는 학습 매개행위가 필요합니다.

7. 맺는 말

저는 매우 특수한 여건 하에서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개인적 경험보다는 최대한 보편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 권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적어보았습니다. 지면 한계로 인해 미처 담지 못한 내용들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매우 방대한 시험범위와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당히 소화함으로써 합격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의 특징에 맞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있어 게임의 룰은 시험 그 자체 특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하면, 어느 부분은 수험생의 개인적 여건, 학습 수준, 가용할 수 있는 학습 시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 개별적인 요소들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계신 원우님들께서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여건과 본인의 위치를 두루 고민해 합목적적인 수험전략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거창해 민망하지만 자신에게 꼭 맞는 변호사시험용 '게임의 룰'을 찾아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대회의 의의

국경을 초월한 상업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중재’가 선호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국제거래법, 국제 중재분야에 관한 서면 작성과 구두 변론의 기량을 겨루는 모의재판 대회이다.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에서는 서면 작성과 구두 변론의 단계를 통해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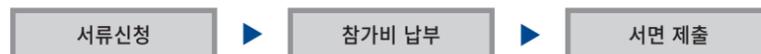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문제로 제시된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읽고 분석하며, 관련 법률 문서를 찾아보고, 원고와 피고를 위한 서면의 초안을 작성하고, 구두변론을 하게 된다. 대회의 문제는 중재와 관련하여 국제 상품 판매 계약에 관한 협약과 기타 상법을 포함하여 출제된다.

1단계	2단계
<p>서면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참가팀들은 영어로 신청인 서면(memorandum) 및 피신청인 서면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p>구두 변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의 팀들에게 네 번의 구두변론 기회가 주어진다. (두 번은 원고측, 두 번은 피고측) · 구두변론 시간: 팀당 30분

■ 기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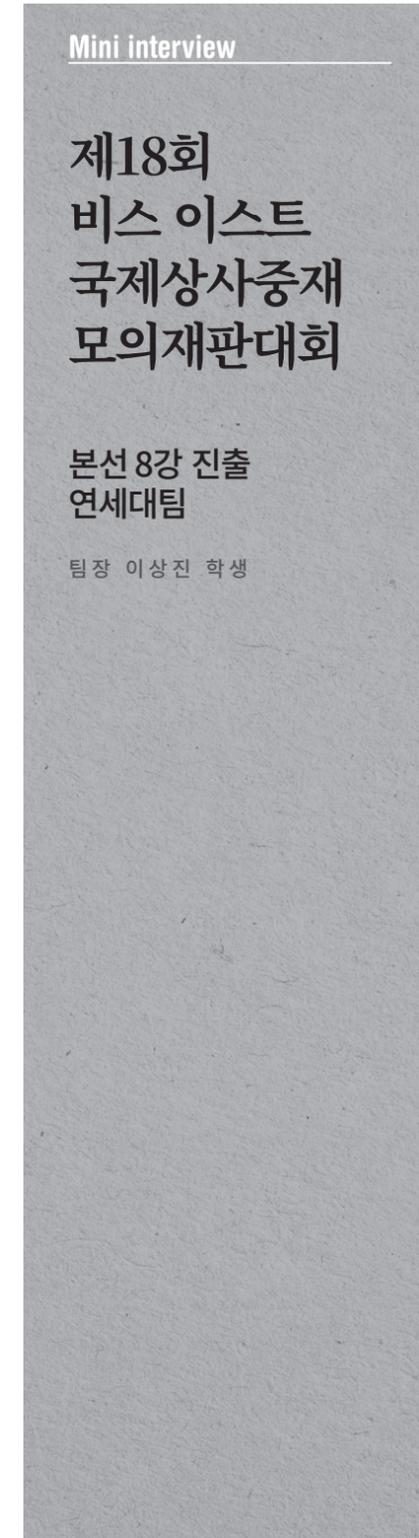
Q. 대회 등록 자격은? 전 세계의 모든 로스쿨 학생들에게 자격이 있으며,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법학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중이라면 가능하다. 석사나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자격이 있다.

Q. 등록 절차는?



※ 참가비: 팀원 5~8명인 경우 US\$ 1,200 / 팀원 4명 이하인 경우 US\$ 1,100

Q. 팀 인원 구성은? 구두 변론에 최소 2명이 참가해야 하므로 2명 이상이라면 팀 구성이 가능하다. (인원 수 제한 없음)



한국팀으로는 역대 최고의 성적인 본선 8강에 진출했는데요. 수상 소감을 이야기 해주세요!!

감사하고 기쁩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호흡이 긴 대회였는데, 약 6개월 간의 여정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좋은 결과도 얻게 되어 행복합니다. 2016년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배님들께서 본선 8강에 진출하신 이후, 그 성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유대형 팀원이 개인변론상(Neil Kaplan Awards for Best Oralists-Honorable Mention)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김준기 교수님, 선배님들, 그리고 국제중재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로펌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쁜 학업일정 속에서 단 한 번의 갈등 없이 시간을 쪼개며 최선을 다해준 팀원들과 좋은 결과를 함께 누릴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큼니다.

팀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연세대학교 팀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생, 그리고 국제학부 학사과정생 연합팀으로 출전했습니다. 법전원에서는 김규영·나정욱·유대형·윤주형·이상진·이주은·이지현·장석우·정장일·한이경 학생이 참여했고, 국제학부에 재학 중인 김예진, 송지나 학생,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생인 Sum Chhay 학생이 출전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는 International Arbitration





하버드 로스쿨 학생들과 경연 중인 연세대팀

Association(IAA)라는 국제중재학회가 있습니다. 이 학회에서 통상 여름에는 국제모의투자중재대회(FDI Moot) 참가자를 모집하고, 겨울에는 국제모의상사중재 경연대회(Willem C. Vi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이번 겨울 제18회 국제모의상사중재 경연대회에는 제가 학회장이자 팀장으로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지원자가 많았는데, 팀원이 너무 많을 경우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과거에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팀이 구성된 적이 없다고 들어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중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모두 뜻깊은 배움의 경험을 얻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총 13명의 팀원이 함께 되었습니다.

대회준비 초반에 국제중재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께 공부하고, 팀 내 목표설정을 확실히 함으로써 모든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하며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결과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연대회의 문제는 코로나19 백신개발을 둘러싼 가상의 제약회사 간 분쟁을 다뤘습니다. 피청구인이 과거에 제3자와 맺은 ‘바이럴 벡터’의 배타적 사용계약이 피청구인과 청구인 간 동일 바이럴 벡터 사용계약과 충돌하는지를 중심으로 중재가 열린 사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증인 심리를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18회 비스 이스트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올해 경연대회의 문제는 코로나19 백신개발을 둘러싼 가상의 제약회사 간 분쟁을 다뤘습니다. 피청구인이 과거에 제3자와 맺은 ‘바이럴 벡터’의 배타적 사용계약이 피청구인과 청구인 간 동일 바이럴 벡터 사용계약과 충돌하는지를 중심으로 중재가 열린 사안입니다.

절차법상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스위스 국제중재규칙에 근거해 참가의사 없는 제3자를 강제로 중재과정에 참가(joiner)시킬 수 있을지 문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증인 심리를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체법상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해당 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매매계약인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라이선스 계약인지, 그리고 CISG 제42조에 의거하여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서면작성과 구두변론 전략을 소개해 주세요.

1. 서면 전략

대회 문제가 크게 절차법상 문제와 실체법상 문제로 나뉘므로 각 파트별로 스피커 1명과 리서처 4명이 전담해서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서면 작성에 있어 모두 공통적으로 집중했던 부분은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 먼저 여러 증거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기록을 꼼꼼히 읽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쟁점을 찾고 2) 학계 및 실무상의 논의를 파악하며 빠뜨린 쟁점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3) 논리의 흐름에 따라 목차를 구성한 뒤 4) 판례 및 서적을 통해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여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5) 이후 청구인(Claimant)과 피청구인(Respondent) 파트를 담당했던 팀원들끼리 서로 서면을 바꾸어 읽어보며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한 결과, 논리와 근거가 탄탄한 서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2. 구두변론 전략

본 대회에서는 한 사람당 15분의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십 쪽에 달하는 대회 문제에 대해 단 15분 안에 중재인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기에 서면 작성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면 작성 시에는 가능한 예비적 청구 및 공격방어방법, 그리고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항변을 모두 포함시켰다면 구두변

론 시에는 그 중 가장 필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회 토너먼트 라운드를 올라갈수록 준비해온 스피치보다는 중재인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변론의 주를 이루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유리한 질문을 유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더라도 즉각적으로 자신감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는 대회 진행을 하면서 변호사, 교수 등의 코칭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세대팀은 누구에게 코칭을 받았으며,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김준기 교수님(연세대 법전문), 이전 대회 참가경력이 있는 원우들, 그리고 박현아



첫 번째로, 대회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전에 뚜렷한 목표설정을 하기를 권합니다. 팀원들과 합의된 명확한 목표는 성공적인 협업의 기본전제이자, 대회준비 과정의 스케줄을 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능동적으로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추천합니다. 준비된 자세와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을 마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변 선배들, 교수님들, 그리고 변호사님들께 공손히 예의를 갖춰 조언을 구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님을 비롯한 법무법인(유) 울촌의 국제중재 분야 변호사님들께 코칭을 받았습니 다. 또한 칭화대학교의 팀과 모의변론 세션을 가지며 Jane Willems 교수님께 코칭을 받았고, 취리히 대학교의 팀과 모의변론 세션을 가지며 Johannes Landbrecht 변호사님께 코칭을 받았습니 다.

코칭을 받으며 학계와 실무상에서는 어떤 쟁점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고, 저희가 준비한 전달방식이 과연 청자에게도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 다. 또한 준비한 변론에 대해 여러 관점의 질문들을 받으며 즉각적인 질의응답에 대비 하고, 변론의 논리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 다.

서면심사와 구두변론 모두 영어로 진행 되어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서면심사와 구두변론이 영어로 이루어

져서 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만의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언어로 소통하는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소통방식 및 표현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가장 설득력 있고 전문적으로 의사소 통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중재대회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기에, 영어 실력에만 치중하지 않고 변론내용을 알차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팀원들끼리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였나요?

총 13명이 참가했는데, 4명이 스피커로 참가했고 9명이 리서처로 참가했습니다. 스피커 1명과 리서처 3명에서 4명이 하나의 셀(cell)을 이루어 각각 청구인측 절차법적 문제, 청구인측 실체법적 문제, 피청구인 절차법적 문제, 피청구인 실체법적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스피커와 리서처가 함께 조사를 하여 목차를 구성한 뒤 서면 작성 시에는 리서처가 주력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스피커가 보조를 했으며, 구두변론 준비 시에는 스피커가 주력하고 리서처가 추가 조사를 함께 해주며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여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무엇인가요?

서로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팀원들을 만나, 함께 국제중재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바쁜 로스쿨 생활 속에서 시간을 쪼개고, 밤을 새어가며 치열하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팀원들과 동료애를 쌓아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갈 친구이자, 함께 믿고 일할 수 있는 동료 들을 만나 감사합니다. 또한, 서면 작성 초기에 소송 전략을 짜는 것부터 시작 해 세계 유수대학의 학생들과 직접 구두변론을 펼쳐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키 운 국제중재분야에 대한 열정은 미래의 세계 큰 자산이 되리라 믿습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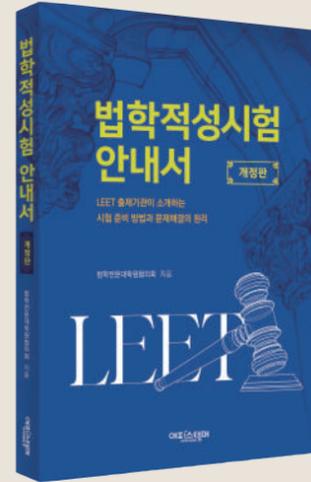
제19회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 대회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전에 뚜렷한 목표설정을 하기를 권합니다. 팀원들과 합의된 명확한 목표는 성공적인 협업의 기본전제이자, 대회준비 과정의 스케줄을 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추천합니다. 준비된 자세와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을 마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변 선배들, 교수님들, 그리고 변호사님들께 공손히 예의를 갖춰 조언을 구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며 보낸 약 6개월은 참 값진 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팀원들과 서로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좋은 성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학적성시험 안내서」 개정판

출제기관이 직접 밝히는 법학적성시험의 모든 것
최신 경향 해설, 엄선된 예제 수록!



「법학적성시험 안내서」는 법학적성시험 출제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시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자 집필한 공식 안내서이다. 개정판에는 2019학년도부터 적용된 법학적성시험 개선안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으며 예제 문항도 최신 의 것으로 교체되어 있다. 시험의 의미 및 시험 준비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새롭게 수록하여, 수험생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저 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출 판 사	에피스테메
가 격	18,000원
판 매 처	전국 오프라인 서점 및 온라인 서점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은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이 출간한 법학적성시험 기출문제 공식 해설서이다.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넓히고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출제 기관인 연구사업단에서 매년 펴내는 도서이다. 제11판은 LEET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 문제 및 이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영역별 최신 5회분(2021~2017학년도)과 과거 6회분(2016~2011학년도)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7월 25일(일)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은 올해 말 발간될 예정이다.

저 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출 판 사	에피스테메
발 행 일	2020년 11월 27일
가 격	18,000원~22,000원

언어이해 영역



언어이해 I
2021~2017학년도
기출문제 및 해설
408면 | 22,000원

언어이해 II
2016~2011학년도
기출문제 및 해설
542면 | 18,000원

추리논증 영역



추리논증 I
2021~2017학년도
기출문제 및 해설
430면 | 22,000원

추리논증 II
2016~2011학년도
기출문제 및 해설
500면 | 18,000원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 제24대 회장단이 출범했다. 총 25개 로스쿨의 학생 대표자 중 2/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득표 요건을 충족하고 당선된 인물은 이화여대 로스쿨의 마태영 학생회장. “코로나 이후 줄어든 소통과 공백을 메우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마태영 신입 회장에게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변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고민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12기

마
태
영
학
생

학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꿈을 꾸는 학생이었는데 궁금합니다.

학부를 돌이켜보면 참 숨 가쁘게 살았던 생각이 먼저 들어요. 가정형편이 넉넉치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랑 과외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욕심을 내서 대학 생활도 모두 놓치지 않고 하려고 했어요. 동아리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연애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이랑도 많이 놀았어요. 욕심만큼 체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웃음). 그래도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전공인 것 같네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사회학을 복수전공했거든요. 그런데 제게 학부에서 가장 감사한 걸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역시 신학과 입학인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꽤 냉소적인 편이었는데 신학과에 있으면서 사람을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세상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꿈도 꾸게 됐어요. 모난 점 투성이었던 저를 감싸준 교수님들과 동기, 선배들 덕분에 많이 컸어요, 정말. 공익이나 인권에 대해서 처음 생각하게 해준 곳도 신학과였어요.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 로스쿨 진학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 학생이었거든요. 이것도 재밌어 보이고, 저것도 재밌어 보이고. 과에 한 명씩은 남이 백

번 말려도 자기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활동은 모두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친구 있잖아요. 제가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짝짝 채워서 하고 나니까 어라, 벌써 졸업이 코앞인거예요(웃음). 그때 늦게 진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제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하자. 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하나 더 있네요. 그게 이왕이면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때 학생회 사업을 하다가 알게 된 변호사님이 법조인을 조심스레 권유해주셨어요. 로스쿨 진학이 예전에도 전혀 선택지에 없던 건 아니었는데, 그때 그분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관련 공익활동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아, 이런 모습의 삶도 가능하겠구나, 확신할 수 있게 돼서 준비하게 됐어요.

3년의 로스쿨 생활 중 절반 가량이 지났는데요. 로스쿨에서의 ‘희노애락’을 소개해 주다면요?

희노애락이요...? 로스쿨엔 ‘애’밖에 없는 것 아니었나요(웃음)? 농담입니다. 저한테 로스쿨의 기쁨은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된 것, 슬픔은 완화상평에도 좋지 않은 못한 제 성적표, 즐거움은 그래도 방학이 있고 언제나 방문을 환영해주는 교수님들이 있다는 것...?(웃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노여움이 뭔지는 알아요. 저는 덜한 편이긴 하지만 종종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어제 봤는데 오늘 기억이 안 나지! 하고 화가 나요. 로스쿨은 그럴 때 괜히 혼자 속상해하지 말고 다시 자신을 도닥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게 중요한 곳 아닌가 싶어요.

이름하여 법학이라는 낯선 학문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시도한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저는 학부에서 신학과 사회학을 복수전공했어요. 전공이 법과 조금씩 맞닿아있을 순 있지만, 법학 자체에 대해 접할 기회는 거의 없는 인문계 비법학사의 전형이었네요. 저는 아직도 법학에 적응 중이라서(웃음) 크게 도움이 되는 조언 일지는 모르겠지만, 법학 관련 책들을 방학에 읽고 들어왔어요. 원래 이때 다른 원우님들은 선행학습을 많이 하는 편인데, 청개구리 심보였나봐요. 아직 입학도 전인데 공부하



기 싫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읽었던 책 중에 박영사에서 나온 민법입문, 율현출판사에서 나온 법학입문 전집이 기억에 남아요. 특히 민법입문은 법학 공부란 게 어떤 건지 어렵지 않은 말로 가감 없이 얘기해주셔서 입학 전 마음의 준비에 도움이 되었어요. 교양서를 꽤나 독파하고 들어오니 이후에 공부할 때도 아 맞아 이거 이거였지, 하고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훨씬 수월했고요. 그 결과 저는 만족했지만, 객관적 성적이 탁월하진 못했으니 혹시 1-1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웃음).

현재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학생회장으로 출마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부에서 학생회 활동을 오래 했어요. 단과대학 학생회도 했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총여학생회 활동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회를 하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원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해요.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삶의 모습과 가치관을 공유하다보면 와, 세상은 이렇게도 넓구나 하고 느껴지잖아요. 그런 시간을 너무 좋아해서, 로스쿨에 오더라도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일을 놓고 싶진 않았어요. 학생회는 그런 저한테는 꼭 알맞은 곳이었던 거죠. 특히 코로나로 학내 활동이 위축되던 시기에 입학해서 학생회가 아니면 더 많은 원우님들을 만날 수 없겠다 약간의 절박함(?)도 있었고요(웃음). 이런 마음으로 1학년 때 새내기 기대표를 받고 2학년 때 학생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해야 할 일도 적지 않게 있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학

생활을 하며 지내는 지금이 좋아요. 왜냐면 그 해야 할 일도 결국 혼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니까요.

학생회장으로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으로서의 계획은 특별히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 원우님들 사이에도, 교수님과 원우님들 사이에도 전반적인 소통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 메꾸는 일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건 원래 공동체의 대표자를 맡게 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막 그렇게 특별한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웃음).

최근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면 법학협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이 구성원이 되어 전체 로스쿨 원생들을 대변하는 대표 기구예요. 지난 선거 무산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잠시 운영되었고 지금은 제가 의장 겸 회장을, 건국대 김현재 회장님이 부의장 겸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법학협 활동을 제 임기 동안 원래대로 안정, 활성화 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었어요.

2030에게 ‘정의’라는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점인데요. 마태영 학생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요?

제게 정의라는 건 모두가 최소한의 자신의 몫을 보장받는 일인 것 같아요. 자신의 몫을 자유, 권리 같은 말로도 치환 가능할 것 같네요. 각자가 처한 입장이나 상황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필요로 하는 것도 모두 다르고요. 수능시험을 예로 들어볼까요? 예컨대 제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사진을 보고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체 텍스트가 필요하겠죠.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는 중이라면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할 테고요. 저는 모두에게 무조건 같은 것을 주는 게 정의나 공평은 아닌 것 같아요. 한정된 자원 내에서 각자의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하죠. 그렇지

만 합당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가 가급적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 뿐 아니라 각 개인도 자기 자리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멀리 갈 것 없이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요(웃음).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변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고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고민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기도 해요. 막상 꺼내놓고 보니 갈 길이 한참 먼 것 같긴 하네요. 일단 번시 합격이라는 큰 관문이 남아있기도 하고요(웃음). 그렇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때까지 지치지 않는 게 관건이겠네요.

Lawschool TIP

마태영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꿀팁

[리트 공략법]

이 글이 지면에 실릴 때쯤이면 거의 시험 준비의 막바지 무렵일 텐데 이때는 자기가 해온 걸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건 다했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공부 방식을 바꾸는 등 일상의 큰 변화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판에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보단 강점이 있는 문제 유형을 반복해서 보는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메인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면접]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말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소신을 잃을 만큼 휘둘리는 건 곤란하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과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면 확실히 이전보다 훨씬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소개서와 발언이 완성되더라고요.

[입시에 도움이 되는 마인드]

어려운 일이지만 대범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리트에서 잘 풀리지 않았던 한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맞출 수 있었던 다른 문제를 틀리잖아요? 입시에서도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미 내 손을 떠났다’ 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리트가 끝나면 자기소개서를, 자기소개서가 끝나면 면접을 준비하면서 남은 아쉬움보단 다음 단계를 더 탄탄히 대비하시길 바라요.



13th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국제법역량강화 및 국제소송에 대한 국내적 관심의 제고를 위하여 외교부가 주최하고 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하는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2021년 8월 27일(금)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제법모의재판 경연대회 일정 및 장소

- 문제 공고 (6월 5일)
- 참가희망자 워크샵 (7월 1일) : 장소 미정 (방역 사정에 따라 on-line 방식으로 진행 가능)
-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27일) : 서울대학교
- 참가신청기간 (6월 5일 ~ 8월 10일)
- 서면본문서 접수 (7월 20일 ~ 8월 16일)
- 모든 절차는 한국어로 진행

시상내역

- 최우수상(1팀) 외교부장관 표창 및 대한국제법학회장 장학금 수여 (600만원)
- 우수상(1팀) 외교부장관 표창 및 대한국제법학회장 장학금 수여 (400만원)
- 최우수변론생(1인) 외교부장관 표창 및 대한국제법학회장 장학금 수여 (100만원) * 본선진출팀 (수상팀 제외 6개팀) 장학금 각 100만원
- 심사결과 등급별 시상 기준에 부합하는 참가팀 또는 참가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 수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공제 후 지급

참가 자격 및 제출 서류

- 참가신청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국제대학원 등 포함)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석사과정을 졸업한 자 (휴학생 및 수료생 포함)
- ※ 단 법학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자, 변호사, 국제법 관련 공무원, 학계, 연구원 및 실무기관 종사자는 제외되며, 전년도 수상팀의 구성원은 참가할 수 없음
- 경연대회 참가팀이 일정 수를 초과할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출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참가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참가신청 기간 내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
- 경연대회 참가희망자는 대한국제법학회 홈페이지 (<http://www.ksil.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참가자 전원의 재학증명서를 스캔하여 참가신청 기간 내에 이메일(ksil@ksil.or.kr)로 제출함
- 구두변론을 실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시, 주최 측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로 대체할 수 있음

재판연구원,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기정 이사장

지난 4월말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가 발표되어 1706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탄생했다. 이로써 전국의 변호사는 휴업과 미개업을 포함하면 3만명을 넘겼고, 개업한 변호사만 해도 약 2만5000명에 이르게 됐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이로 인해 법률시장에서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갖 취득한 청년변호사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겨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초과근무, 성희롱 등 부당한 노동행위에 노출되곤 한다. 현행법상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의 부당행위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 법원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2020년 민사합의 사건을 기준으로 1심 재판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10개월인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개월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건 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성장하면서 사건당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판사의 평균연령이 늘고 승진제도가 폐지되면서 판사들이 예전처럼 격무를 자처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건 적체가 심해질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판사무를 처리할 일손이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더 많은 청년변호사들에게 재판사무를 맡기는 것이다. 예산과 정원 문제 때문에 당장 판사로 임용하기 어렵다면, 재판연구원(로클릭)으로 임용하여 기록검토, 법리연구,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의 역할을 맡기면 된다. 이미 300명의



재판연구원이 고등법원에 배속되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숫자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이미 법원은 이른바 법조일원화 제도를 채택했다. 예전에는 시험공부만 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20대 후반의 젊은 판사가 재판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현재는 최소한 5년, 2022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만 판사가 될 수 있다. 즉 2026년부터는 새내기 판사라고 해도 변호사나 검사로 최소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로 인해 세상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에게 재판을 맡아야 하는 문제는 해소됐다. 그러나 왕성하게 사건기록을 읽고 판결문을 써내던 젊은 판사들의 열기 넘치는 일처리 능력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사법개혁의 결과로 법관의 사회경력은 늘었지만 고

령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하 역시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조일원화 모델이 된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판사 1명에 1~4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한다. 판사들이 고령화된 이들 나라에서 재판연구원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조일원화를 택하였음에도 판사 3000명에 재판연구원은 300명에 불과하여, 판사 10명이 재판연구원 1명을 나눠 쓰는 구조이다.

사건이 폭주하는 각급 법원의 재판 현장에서는 재판연구원을 늘려서 재판부마다 한 명씩이라도 배속시켜 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재판연구원을 최소한 2배 이상,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사법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재판연구원 증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 청년변호사들의 숨통을 트여 주는 일석이조의 현명한 정책이 될 것이다. 재판연구원으로 착실한 훈련을 받고 3년의 임기를 마친 청년변호사들은 장래 우리나라 법조계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것이니 이는 미래에 대한 값진 투자이기도 하다.

출처: 6월 16일자 머니투데이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변호사시험 성적과 법조직역 진출 - 간판중심에서 실력을 존중하는 공정한 경쟁사회로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섭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하에 설치된 것이다.

변호사시험법 제2조에 의하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률가 양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변호사시험을 그 합격여부로만 활용하고 있고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법조직역진출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1706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그 후 로스쿨 별로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과 제10기 초시 합격률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로스쿨의 교육에 긍정적 기능을 하는 채점평의 작성이나 채점기준은 물론 수석, 최연소 및 최고령 합격자의 이름과 소속의 공표에 매우 소극적이다.

변호사시험의 석차 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해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올해부터 변호사시

험 성적과 그 석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시험은 비록 자격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법률적 지식과 능력의 객관적 검증수단이 되어 법조직역 진출에 있어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인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검사의 임용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법조 직역진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법조직역 진출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성적 요소와 더불어 학교별로 차이가 나고 다소 객관성이 떨어지는 로스쿨의 성적을 반영하게 될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용절차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더구나 로스쿨 별 합격률에 의하여 포장된 로스쿨의 순위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어느 로스쿨 출신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되어 법조시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된 실력에 의한 진검 승부가 아니라 오도된 로스쿨의 서열이라는 간판에 편승하는 무임승차가 가능하게 된다.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에서의 성적은 미국의 심리학자 루친스가 말한 '초두효과(初頭效果, primacy effect)'를 형성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법조직역진출에 활용하는 것은 간판중심의 사회에서 실력을 존중하는 공정한 경쟁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형식적으로 로스쿨 별 합격률 차원에서 로스쿨의 서열로 받

아들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격자 각 개인의 실력의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로스쿨의 타이틀에 연연하여 로스쿨에 입학한 후 다른 로스쿨 진학을 위하여 한 학기를 허송으로 보내는 반수생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성적을 검사임용이나 재판연구원 선발,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공직임용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형 로펌의 경우 자체적으로 경쟁적 선발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지만, 1학년이나 2학년 방학 중 인턴과정을 거친 후 특정 로스쿨을 중심으로 입도선매(立稻先賣)식으로 채용하는 방식 일변도에서 벗어나 변호사시험에서 탁월한 성적을 낸 우수한 잠재 역량을 갖춘 인재에게도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로스쿨 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라는 단선적인 기준으로 로스쿨의 서열을 오도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많은 불합격자를 배출한 로스쿨의 순위와 그 반대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로스쿨 순으로 알리면 로스쿨 서열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오히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 전체 수석, 최연소자 및 최고령자를 공표해 변호사시험의 위상을 높이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증을 수여하면서 이유제시의 관점에서 성적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의 성적표에 과목별로 구분하여 성적과 석차를 명기하면 각종 채용기관에서 가중치를 두어 법률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직임용과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능력주의에 비추어 보거나 공정한 임용절차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출처: 대한변협신문(2021-06-14)

김용섭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1. ~ 2021. 2.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공법)
2021. 3. ~ 2023. 2.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공법검토소위원회 위원장)
2021. 3. ~ 2023. 2.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소개 및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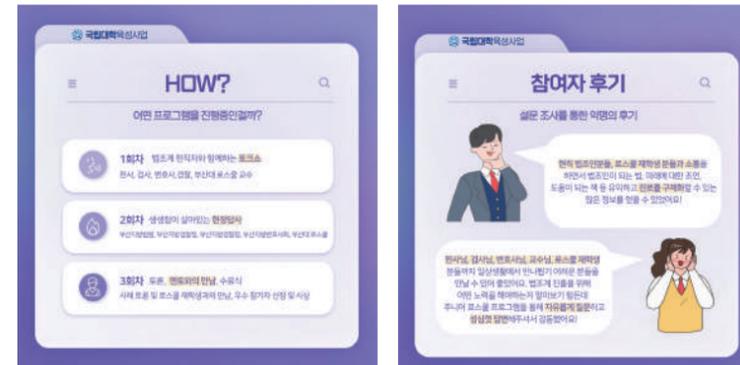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배소혜

1.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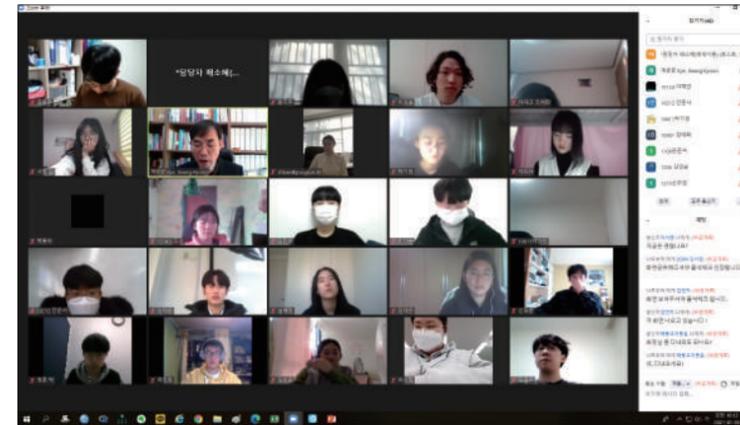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는 1996년 이래로 부산대학교 구성원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국립대학으로서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법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한 「미래세대를 위한 주니어 로스쿨」은 지역주민과 여러 기관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올해 첫 시행되는 「법률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고교 리걸클리닉」은 부산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은 물론 도서산간지역의 법률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의 주요 법교육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2. 국립대학육성사업 ①: 미래세대를 위한 주니어 로스쿨

「미래세대를 위한 주니어 로스쿨」은 2019년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님(전 법률상담소장)의 추진 아래 부산시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규범교육 및 미래 지도자 규범의식을 함양하고자 시행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법조계 진출을 희망하고 궁금해 하는 학생들은 많으나 이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제양성과 재능기부 등 지역 사회 봉사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법조계 인사와 함께하는 토크쇼', '견학', '사례토론', '멘토와의 대화' 등 다양한 세션을 포함하며,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도움과 법조계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와 함께하는 토크쇼'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제1회 미래세대를 위한 주니어 로스쿨



제2회 미래세대를 위한 주니어 로스쿨 (전 일정 Zoom으로 진행)

관 등 현직 법조계 인사를 초청하여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다양한 에피소드, 법조계 진출 방법 등에 대해 듣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2019년 첫해에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등학생은 15명이었으나, 입소문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8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제2회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모집인원 30명). 코로나 19로 프로그램의 전 일정이 Zoom(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변경되고 견학이 취소되었습니다만, '멘토와의 대화'라는 새로운 세션을 도입하여 멘토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계기, 진로설

계의 타이밍, 자신만의 공부법 등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면서 아쉬움을 대신했습니다. 또한, 화상강의로 인한 집중력 분산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교육자료 사전발송, 연습, 사전 질문지 취합 등을 진행했으며, 이에 비대면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하계와 동계에 걸쳐 총 2회 시행하고, 모집인원은 40~5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7월 17일부터 31일까지(매주 토요일) 총 3주에 걸쳐 진행되는 하계 프로그램에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 수원지방 법원 이은경 판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송진민 검사, 법무법인 법조 전문 변호사,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이동진 경정을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 덕분에 연간 2회 실시하게 된 만큼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채로운 세션 진행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래 비전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훌륭한 미래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활동이 제한되어 Zoom으로 진행되지만 정보전달이 부족하지 않도록 법조계 인사들의 훌륭한 강의와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1. 지역 맞춤형 주니어 로스쿨

「미래세대를 위한 주니어 로스쿨」이 대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부산 소재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담당자로부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교육의 기회가 적은 기장군 내 고등학생들에게 주니어

로스쿨을 소개하고 법조인,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미래에 대한 포부와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는 2020년에 기장군도시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올해 8월 21일(토요일)에 기장군도시관리공단과 협력하여 '지역맞춤형 주니어 로스쿨'을 첫 실시합니다.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는 '지역맞춤형 주니어 로스쿨' 외에도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산하의 청소년수련관, 문화·복지시설 이용 주민 및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법률교육 및 진로교육 등 법률서비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3. 국립대학육성사업 ② : 법률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고교 리걸클리닉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장이신 강명수 교수님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된 「법률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고교 리걸클리닉」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서산간지역에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문화 보급과 지역사회 발전 등 사회 공헌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함이며, 둘째는 부산 시내 고등학생이 법률봉사에 참관함으로써 법조계 진출 시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고, 법조 직업에 대한 이해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관심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견학팀과 멘토링팀으로 나누어, 견학팀은 도서산간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 과정에 참관하여 직무에 대한 사전 경험을 습득할 수 있으며, 멘토링팀은 소규모 맞춤형 멘토링 및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서관,

열람실, 법률상담소 등 캠퍼스 투어 등을 하게 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법문화진흥센터(법무부 지정 2021-1호)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는 2021년 법무부로부터 '법문화진흥센터(법무부 지정 2021-1호)'로 지정받았습니다. 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 교육 기관, 단체 및 시설 중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여 3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는 부산지역 청소년의 법교육 뿐만 아니라 도서산간지역의 법률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법문화진흥센터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 지정 법문화진흥센터(법무부 지정 2021-1호)

5. 마무리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에서는 지역사회 인재양성, 재능기부 및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앞서 언급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는 법문화진흥센터로서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법조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법률상담소로 연락주시면 항상 귀 기울여 듣고 논의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하계와 동계로 연간 2회 시행되는 「미래세대를 위한 주니어 로스쿨」과 「법률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고교 리걸클리닉」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망 노동자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겨레 사회부

이재호 기자

2018년 8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 수상.
21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수상.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제가 끌어안아 빌겠습니다. 우리 애 죽음을 제발 좀 밝혀주십시오.”*

2020년 10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장광씨가 무릎을 꿇고 읍소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앞에서였죠. 이날은 고용노동부 종합감사가 있는 날로 쿠팡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주당 70시간 시간 노동에 15kg 빠지기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을 했던 장씨의 아들 덕준씨는 2주 전이었던 10월 12일 오전 4시 퇴근했다가 화장실에서 씻던 중 쓰러졌습니다. 오전 7시 30분, 가족이 발견했을 땐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꼬박 1년 4개월 동안 '심야노동'을 했습니다. 쿠팡의 빠른 배송속도와 새벽 배송 뒤에는 그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덕준씨의 근무기록을 보면 주로 저녁 7시에 출근해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일을 했고, 연장근무를 하면 5시 30분까지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났던 10월엔 휴일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12일 가운데 9일을 일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한다는 과로사 판정 지침을 적용하면 장씨가 입사 뒤 하루 9.5~11시간을 일했다. 8월엔 주당 70.4시간, 9월엔 69.4시간을 일했다”고 지적하면서 업무로 인한 과로사, 산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쿠팡에서 일하는 동안 15kg이 빠지면서 야위어 갔다. 일하다 무릎에 염증이 생겨 무릎 보호대를 했고, 일주일에 두 세 번은 퇴근한 뒤 욕조에 몸을 담갔다.” 덕준씨의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그러나 덕준씨를 고용했다는 쿠팡 쪽은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0월 16일 ‘쿠팡 뉴스룸’에 올린 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억지로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와 연결하며 쿠팡을 비난하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약 44시간이었다. 고인과 같은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한다. 쿠팡의 단기직 노동자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 업무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종합감사에선 끝내 회사 쪽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발뺨하고 보는 기업>

이렇듯 기업이 노동자의 산재 인정에 인색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수면 부족과 과로가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학과 의학에서 적절한 수면과 휴식이 주목을 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은 수면의 불평등이 각종 질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정상수면을 취하는 사람에 비해 1.5배까지 높아지고, 뇌졸중 위험도 1.2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이나 인종,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심혈관 질환 유병률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수면의 불평등’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면의 양과 질이 부족하면 비

만, 고혈압, 당뇨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세계보건기구(WHO)가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내 학계와 정책입안자들, 정치인들 사이에서 좀처럼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철야노동으로 근대화를 이룩하고 ‘4당5락’(네 시간 자면 붙고, 다섯 시간 자면 떨어진다) 하지 않으면 대학도 갈 수 없는 대한민국이어서 그럴까요? 기업은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산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기업들은 “노동자의 노동강도나 근무환경에는 해당 질병·사고를 초래할 만한 원인이 없었다”고 발표하고 봅니다. 노동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건강문제로 책임을 돌리는 거죠. 직업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차단하고 산재 인정을 막기 위함이지만 이는 산재 보상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절차는 노동자의 피해에 고용주의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본질은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노동자의 손 든 뒤 증가한 업무상 질병 인정>

노동자의 과로사에선 단일 요인(야근, 과로 등)과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죽음 가운데 노동환경의 영향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요. 과거에는 노동자의 인명피해와 노동환경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관대하게 산재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선 산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전환점이 됐던 시기를 2017년으로 꼽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 천안 LCD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다발성 경화증)을 얻었지만 산재 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추론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이후 보도자료를 내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 보건



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증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후 산재 인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30~40%대를 유지했던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2017년 52.9%로 과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64.6%에 이르고 있죠.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노동현장과 기업, 사회인식입니다.

덕준씨가 떠난 지 4달 뒤에야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버지 장씨가 언론사에 보낸 소포에는 “함께 해주

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비명(非命)에 보내고 국회의원 앞에 무릎 꿇고 읍소한 아버지가 떠올라 눈두덩이가 뜨거워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1900명이 감염돼 목숨을 잃었지만, 2062명의 노동자는 산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본 앞에 노동자는 위태롭습니다. 법과 법률가, 그리고 예비 법률가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께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선담은, 『“쿠팡서 일한 아들 죽음 밝혀주세요” 국감장서 무릎 꿇은 아버지』, 『한겨레』 2020.10.26

** 전광준, 『재 유족들에겐 야속하기만 한 ‘유니콘’ 쿠팡』, 『한겨레』 2020.2.16

*** Jackson, C. L., Redline, S., & Emmons, K. M. (2015). Sleep as a potential fundamental contributor to disparities in cardiovascular health.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36, 417-440. <https://doi.org/10.1146/annurev-publhealth-031914-122838>

**** 대법원, 선고 2015두3867 판결



남기엽 변호사

現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변호사
 現 주간 시사저널 칼럼니스트
 現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위원회 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발전 소위원회 위원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정위원회 재정위원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남변의 미술노트 6] 에드가 드가, <기다림>

“행복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그 자체이다”

-조나단 선즈(Jonathan Sunze) -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그 행복의 준거는 내가 느끼는 감정의 연속인데 가끔 '목표 달성'이라 착각하게 된다.

얼마 전 일이다. 약속이 있었고 난 짐머만의 슈베르트 판타지를 들으며 평온하게 길을 나섰다. 늦지도 않았다. 음악과 새소리 벗하며 걷다 저 앞 횡단보도 파란불을 보았다.

본능적으로 뛰었다. 딱히 뛸 이유가 없었는데 뛰기 시작했다. 숨이 찼고 땀이 났다. 가까스로 Time-in 하여 무사히 건넜지만 옷은 땀에 젖었고 숨을 헐떡였다.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 주는 평온이 깨졌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남변호사님 소장 초안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오늘도 성격 급한, 그러나 인자하신 부장님은 내게 재촉한다. 저 물음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다. 내가 초안을

작성해야 부장님이 검수하고 대표님이 최종 검토하여 나가는 시스템에서 행간에 내재된 뜻은 초안을 “빨리” 달라는 것이다. 속도보다 품질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90년대를 강타했다면, 지금은 속도 자체가 품질이다. 퀵 서비스, 로켓 배송, 패스트푸드 등. 차별화를 표방하는 모든 마케팅 캐치프레이즈엔 속도가 들어간다.

5G도 아직 적응이 안 됐는데 6G 이동통신이 나올 준비를 마쳤고, 유통업은 다음날 배송도 모자라 당일 배송까지 시작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른가로 귀결되는 속도전능사회에서 품질, 학식, 스타일에 더하여 이제는 속도마저 재화가 되어버린 특권 계층의 프리바토피아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속도에 지친 나는 가끔 드가의 작품을 보며 위안을 얻는다. 드가는 법과대학에 다니다 진로를 바꿔 발레리나를 여럿 그렸다. 그러나 그는 무대 위의 화려한 발레리나가 아닌 그들

의 무대 뒤 날것의 모습을 그렸다. 에드가 드가의 작품 <<기다림>>에서 어느 발레리나는 벤치에 걸터앉아 양말을 고쳐신는다. 그 옆 중년의 여성은 우산을 든채 생각에 잠겨있다. 온화한 파스텔톤은 그들이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 낭비할 시간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작품 속 둘 모두 서로를 신경쓰지 않는다. 발레리나는 무대에 오르기 전 자세를 잡으며 호흡을 가다듬고 옆의 여성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자신의 생각에 침잠한다. 각자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기다린다. 그 대상의 접합되지 않는 시선에서 우리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정말 나만의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생각이 잠기기 전으로 돌아가 보자. 횡단보도를 가까스로 건넌 직후인 나에게 안 뛰었다면 건너편에서 유유히 음악을 즐기며 여유를 부릴 내 잔상이 보였다. 뛰지 않았다면 난 지금 땀범벅인 채로 걸어가는 대신 저 앞 횡단보도에서 신

호를 다시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나는 '효율'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목표라 착각하는 파란불의 허상이 우리 인생 도처에 널려있다는 사실을.

대학입시, 다이어트, 입사, 결혼, 행복의 관문이라던 모든 욕망이 모두 타인에게 학습된 만들어진 사회의 욕구였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가 정말 뛰어야 했던 파란불은 무엇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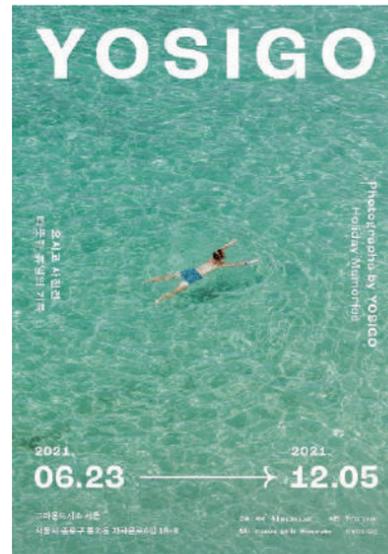
에드가 드가, << 기다림 >>, 1880 - 82, pastel on paper



**따뜻한 휴일의 기록
요시고 사진전**

요시고(YOSIGO)는 평범한 풍경과 장소를 부드러운 색감과 정갈한 프레임으로 담아내는 스페인 사진작가다. 주변 사람들에게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했던 SNS 계정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리며 인지도를 얻기 시작해, 키포크, 비트라, 잭 다니엘 등 글로벌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그의 사진 기법과 스타일을 조명하고, 작가의 카메라에 포착된 흔적들을 쫓는다. 여행 감성을 자극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이국적인 풍경들을 비롯해 총 350여 점의 작품이 관람객과 만난다.

- 🕒 전시기간 2021.06.23 ~ 2021.12.05
- 📍 전시장소 그라운드시소 서촌
- 🎫 티켓가격 15,000원
- 🌐 홈페이지 www.groundseesaw.co.kr



**천재 예술가 뱅크시의 첫 국내전
THE ART OF BANKSY, WITHOUT LIMITS**

얼굴 없는 작가로 알려진 세계적인 거리예술가 뱅크시의 대규모 전시회가 국내에서 열린다. 뱅크시는 건물 외벽에 그래피티를 남기거나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몰래 걸어두는 등의 파격적인 행보로 유명한 작가다. 이번 전시는 뱅크시가 직접 허가하고 참여한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한 헌정 전시회로 기획됐다. 이스탄불, 암스테르담, 멜버른, 앤트워프, 베를린 등 11개 도시를 거쳐 아시아 첫 전시로 서울을 찾았다. 뱅크시의 예술 세계를 다룬 독특한 전시로 오리지널 작품과 '풍선 든 소녀', '폴리스키즈', '폴프 픽션', '꽃던지기' 등 대표적인 벽화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사진, 조각, 다양한 재료로 구현된 판화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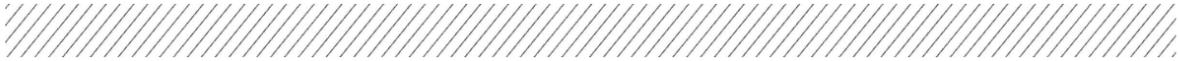
- 🕒 전시기간 2021.07.30. ~ 2022.02.06
- 📍 전시장소 갤러리아포레 더 서울라이트룸
- 🎫 티켓가격 20,000원
- 🌐 홈페이지 www.seouliteum.com

**무대 위에 펼쳐지는 블록버스터급 판타지
뮤지컬 <비틀쥬스>**

뮤지컬 <비틀쥬스>는 독특한 세계관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팀 버튼 감독의 초기작 '비틀쥬스(유령수업)'를 뮤지컬화한 작품으로, 워너브라더스가 제작을 맡아 2019년 브로드웨이에서 첫 선을 보였다. 유명이 된 부부가 자신들의 신혼집에 낯선 가족이 이사 오자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유령 '비틀쥬스'와 벌이는 독특한 이야기를 다룬다. 시시각각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화하는 화려한 무대 세트, 추락이나 공중부양 등 마술 같은 연출 기법과 거대한 퍼핏 등이 기대를 모은다. 비틀쥬스 역에 유준상, 정성화가 더블캐스팅 됐다.



- 🕒 공연기간 2021.06.18 ~ 2021.08.07
- 📍 공연장소 세종문화회관
- 🎫 티켓가격 VIP석 150,000원, R석 120,000원
- 🌐 홈페이지 https://www.sejongpac.or.kr/



**영화보다 빛나는 영화 음악
히사이시 조(Hisaishi Joe) 영화음악 콘서트**

영화음악의 거장 히사이시 조(Hisaishi Joe)의 영화음악 콘서트가 7월 24일(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70인조 오케스트라가 협연으로 선보이는 이번 콘서트는 작곡가 히사이시 조의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중 베스트 컬렉션으로 꾸며진다. 히사이시 조의 첫 애니메이션 음악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시작으로 '마녀 배달부 키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벼랑 위의 포뇨', '키쿠지로의 여름', '천공의 성 라퓨타', '바람이 분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이 선보인다. 심포니,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등 다양한 협연으로 히사이시 조의 음악을 더욱 풍성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느낄 수 있다.

- 🕒 공연기간 2021.07.24.
- 📍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 티켓가격 R석 120,000원, S석 90,000원
- 🌐 홈페이지 https://www.sac.or.kr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노력

법전원협의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앞두고 심포지엄 및 간담회 개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면담 진행 등 합격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법전원측 위원 회의

다. 특히 법전원 소속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경북대 김효신 교수, 고려대 안효질 원장, 서울시립대 이상경 원장, 이화여대 정현미 원장, 인하대 이경주 원장)과 법전원협의회 한기정 이사장, 건국대 이승호 교수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합격자 발표 당일에 개최되는 변시관리위원회 본 회의 전략 등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4.06%로 지난해 합격률 53.32%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자격시험 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에 4월 30일(금) 한기정 이사장 및 법전원 소속 변시 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제10회 변시 합격자 결정 과정을 점검·평가하고, 제11회 변시 합격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 응시자: 3,156명 / 합격인원: 1,706명 / 합격률: 54.06%
- 합격기준 점수: 총점 895.85점 이상

구분	성별		전공	
	남성	여성	법학	법학 외
제9회	972명 (54.98%)	796명 (45.02%)	637명 (36.03%)	1,131명 (63.97%)
제10회	985명 (57.74%)	721명 (42.26%)	475명 (27.84%)	1,231명 (72.16%)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채점 업무담당자 회의 개최

지난 6월 3일(목)부터 법전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채점 업무담당자 회의가 진행되었다. 202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 답안지 공동채점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변시 모의시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채점방식 및 답안지 우편발송 등 전반적인 사항이 안내되었다. 회의에는 공동채점 위원장인 송양호 전북대학교 법전원장을 비롯하여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업무담당자 11명이 참석하였다.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방안」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전원협의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6월 25일(금)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역량 있는 법관을 다수 확보하기 위한 임용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에는 남형두 원장(연세대학교 법전원),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전원), 최우진 교수(고려대학교 법전원)를 비롯해 김신유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이 참여했다. 한기정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법조일원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려면 섬세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또한 오늘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미래의 법관을 포함한 다음 세대의 법률가들을 길러내는 데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교류협정 체결식 진행

6월 7일(월) 법전원협의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학술교류협정 체결식이 열렸다. 이번 협정은 우수한 법조 인력의 양성과 우리 사회의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체결된 것으로, 양 기관은 향후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연구인력 등을 교류키로 하였다. 체결식에는 한기정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이승호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장, 김명기 사무국장과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홍영오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입 원장 취임



정승환 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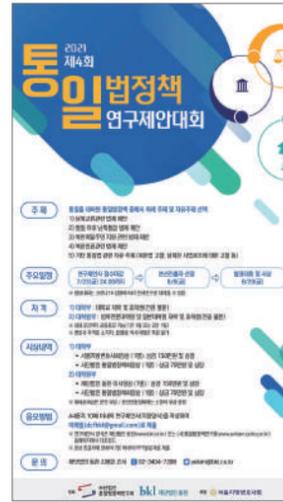
왕상한 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승식 원장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제4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 대회 주제: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정책 중에서 아래 주제 및 자유주제 선택
 - 1) 남북교류관련 법제 제안
 - 2) 통일 이후 남북통합 법제 제안
 - 3)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법제 제안
 - 4) 북한인권관련 법제 제안
 - 5) 기타 통일법 관련 자유 주제
- 접수 마감: 2021.7.23.(금)
- 시상 일정: 2021.8.20.(금)
- 시상 내역: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상 1명(150만원), 사단법인 통일법정책회장상 1명(70만원)
- 문 의: 재단법인 동천 김영은 간사(02-3404-7398)



제16회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 공모 과제: 응모자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중 택1하여 논문 작성
 - 지정과제①: 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 지정과제②: 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 과제: 특허·상표와 관련된 판례 중 1개를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공모 기간: 2021.4.21.(수) ~ 2021.9.30.(목)
- 응모 자격: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 가능(2인 1팀)
- 응모 방법: 전자메일 응모
-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응모 신청서 1부,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1부, 판례연구 논문 1부
- 특 전: 최우수상 1편(200만원), 우수상 2편(100만원), 장려상 3편(50만원)
- 결과 발표: 2021.11.30.(화)
- 문 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4)

제3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 논문 주제: 통일법제 및 남북교류협력법제 관련 자유 주제
- 응모 자격: 제한 없음
- 접수 기간: 2021.9.1.(수) ~ 2021.9.16.(목)
- 접수 방법: 전자메일 응모
- 수상자 발표: 2021.10.8.(금)
- 시상일정: 2021.10.14.(목)
- 특 전: 최우수상 1편(200만원), 우수상 2편(100만원)
- 문 의: 법무부 통일법무과(02-2110-3223, 3230)



Law Quiz



Q1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의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회기'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의회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③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개최할 수 있으나, 전원위원회는 해당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 ④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지만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連席會議)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고 표결을 할 수 있다.

Q2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자전거 운전자 A와 시비가 붙자 A가 탑승한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A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써 A는 甲이 의도치 않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
- ② 특수폭행으로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상해가 아닌 일반상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③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반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기소한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일반상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 ④ 법원은 甲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유예할 수 있다.
- ⑤ 제1심 법원이 甲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벌금을 120만 원으로 감경하여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1일 5만 원으로 환산하였다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Q3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유치권의 목적이 수용된 경우 유치권의 효력은 그 수용대금에 미친다.
- ㄴ.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가 아닌 한, 간접점유만으로도 유치권의 성립은 가능하다.
- ㄷ.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ㄹ.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허락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의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